

시벨리우스:
교향곡 6번, 7번, 핀란드야

피에타리 인키넨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낙소스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핀란드 출신의 젊은 마에스트로 피에타리 인키넨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사이클 제 4탄. 작곡가 스스로 첫눈의 정경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했던 교향곡 6번과 시벨리우스의 파르지팔이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브라스 코랄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 단악장의 교향곡 7번을 담았으며, 조국애를 강건하게 표현한 작곡가의 대표작 '핀란드야'도 함께 수록되었다.

8.572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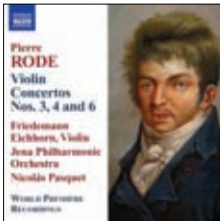
NAXOS New Releases

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림스키코르사코프:
스페인 카프리치오, 러시아 부활절
서곡 및 오페라 서곡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8.572788



로드:
바이올린협주곡 3,4,6번
프리드리히만 이이호호른(vn)
니콜라스 파스케
에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570767



펜데레치카:
비올라협주곡, 첼로협주곡 2번
그리고리 지슬린(va)
타타나 바실리예바(vc)
안토니 비트/ 바르사바 필하모닉

8.572211



파트:
피아노작품집
랄프 반 라트(pf)
조안 팔레타
네덜란드 라디오 챔버 필하모닉

8.572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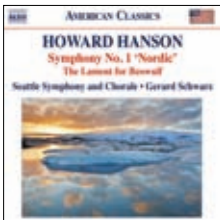
쇼송:
바이올린과 피아노, 현악사중주를
위한 협주곡, 피아노트리오
에릭 라르센(pf)/ 스티븐 쉘스(vn)
비한 쿼텟/ 메도우마운트 트리오

8.572468



이르겐스-엔센:
교향곡 d단조, 에어, 파사칼리아
비야르데 영예세트
분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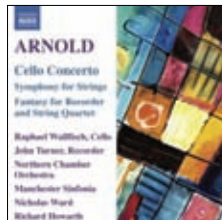
한슨:
교향곡 1번 '노르딕', 베오울프를
위한 애가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와 합창단

8.559700



라이언:
교향곡 1번 '달아나는 색깔들', 삼
중협주곡 '등변체 외
그리폰 트리오는
브람웰 토비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2765



아놀드:
첼로협주곡, 콘체르티노, 색소폰협
주곡, 현을 위한 교향곡 외
라파엘 윌피시(vc)
칼 레이븐(sax)
리처드 하위스
맨체스터 심포니

8.572640



슈wantner:
타악기협주곡, 아침의 포옹, 빛을
따라서..
크리스토퍼 램(perc)
잔카를로 게레로
내시빌 심포니

8.559678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50호 | October 2011



* Hot Issue

Ondine CD '호두까기 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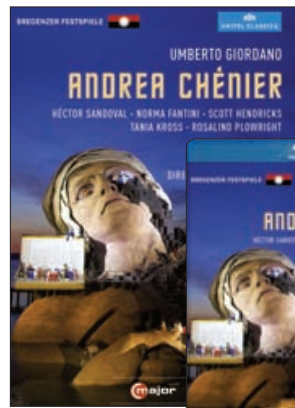
Accentus DVD, Blu-ray 말러 교향곡 2번, 8번

**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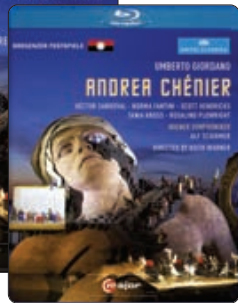
한글자막 포함 수입 완제품 영상물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수입 오페라

(주)아울로스 미디어는 세계 최고의 클래식 영상물 제작사인 C Major와 Arthaus와의 협력 작업을 통해 이들 레이블의 인터네셔널 발매분에도 한글자막을 삽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오페라 애호가들은 양질의 수입 완제품 오페라 영상물들을 친절한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C Major 707908 [DVD]



C Major 708008 [Blu-ray]

조르다노: 안드레아 세니에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헥토르 산도발(세니에)/ 스킷 헨드릭스(제라르)/ 노르마 판티니(마달레나) 외/ 울프 슈뢰머/ 빈 심포니키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는 브레겐츠의 화려한 호반무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국경에 위치한 보덴호수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성대한 오페라의 축전이 펼쳐진다. 호수의 수면 위에 설치되는 스펙터클한 무대미술로 유명한 브레겐츠 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광활한 호수 면에서 펼쳐지는 공연인 만큼 불가피하게 가수들이 마이크를 이용해야만 하는 약점이 있지만,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한 화려한 무대미술과 독특한 연출로 유럽을 대표하는 오페라 축제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브레겐츠의 무대에 오른 오페라는 조르다노의 대표작인 <안드레아 세니에>다. 프랑스 대혁명기의 혼란 속에서 희생된 젊은 시인의 열정을 다룬 이 오페라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조국의 적', '5월의 아름다운 어느날' 과 같은 빼어난 선율의 아리아들과 죽음을 초월한 감동적인 사랑을 다룬 극적인 스토리로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작이다. 다비드의 유명한 그림인 '마라의 죽음'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거대한 무대 위에서 멕시코의 새로운 드라마틱 테너 기대주 헥토르 산도발이 영웅적인 세니에를 열연하였다.



C Major 707308 [DVD]



C Major 707404 [Blu-ray]

비제: 카르멘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베아트리스 위리아-몽종(카르멘)/ 로베르토 알라나(돈 호세)/ 어윈 슈로트(에스카미요)/ 마리아 포플라프스카야(미카엘라) 외/ 마르크 피올레(지휘)/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이 시대를 대표하는 카르멘과 돈 호세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다

'오페라계의 도살자'로 악명 높은 화제의 연출가 칼릭스토 비에이토의 <카르멘>이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2010년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을 위해 연출한 최신 프로덕션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카르멘과 돈 호세인 베아트리스 위리아-몽종과 로베르토 알라나, 그리고 네트렙코의 남자라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서 오페라계의 새로운 히어로로 급부상을 올리고 있는 바리톤 어윈 슈로트가 한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한다. 비에이토의 이전 연출작들에 비해 선정성과 폭력의 강도가 다소 줄어든 편이지만, 현대적이고도 암울한 배경 위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여정은 21세기 우리 주변에서도 이 악녀의 이야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될 수 있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보다 통상적으로 공연되는 레치타티보를 적용한 개정버전에 의한 연주이며,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이 이 위대

한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도와줄 것이다.



Arthaus 101 574 [DVD]

모차르트: 돈 조반니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돈조반니)/ 발터 베리(레오렐로)/ 엘리자베트 그뤼머(돈나 안나)/ 필라 로렌가(돈나 엘비라)/ 에리카 콧트(체를리나) 외/ 페렌츠 프리차이(지휘)/ 베를린 도이치오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프리차이, 피셔-디스카우, 발터 베리의 전성기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다

베를린은 냉전 시절 동서로 양분되는 불행을 겪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한층 더 풍요로운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도시의 자랑이었던 베를린 국립가극장과 베를린 필이 각각 동서로 갈라지면서 양쪽은 상대방에 필적하는 신생단체들을 각기 설립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동베를린의 베를린 심포니(현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서베를린의 베를린 도이치오퍼였다. 본 DVD는 바로 1961년에 있었던 베를린 도이치오퍼의 역사적인 개관 공연을 담고 있다. 당시 카라얀에 버금가는 명망과 인기를 누렸던 페렌츠 프리차이가 지휘봉을 잡았던 이 공연에는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의 타이틀 롤을 비롯하여, 발터 베리, 필라 로렌가, 엘리자베트 그뤼머, 요제프 그라인들과 같은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정상급 가수들이 총출연하면서 이 극장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였다. 흑백화면과 모노 오디오채널, 그리고 당대의 관습대로 독일어로 노래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전설적인 마에스트로와 정상급 대가수들의 전성기 모습을 한글자막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Arthaus 101 571 [DVD]



Arthaus 108 028 [Blu-ray]

헨델: 알치나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아나 하르테로스(알치나)/ 베셀리나 카사로바(루지예로)/ 크리스티나 함마르스트룀(브라다만테)/ 베로니카 칸제미(모르가나) 외/ 마크 민코프스키/ 르 뒤지시앵 뒤 루브르

헨델의 대표 오페라 걸작을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다

헨델을 비롯한 여러 바로크 오페라들은 화려한 무대와 아름다운 선율에도 불구하고 장황한 내용 때문에 쉽게 몰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바로크 오페라 영상물들이 한글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헨델의 걸작 오페라의 하나로 꼽히는 <알치나>의 2010년 빈 슈타츠오퍼 실황을 담은 본 영상은 Arthaus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을 통해 그 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바로크 오페라의 화려한 진면목을 펼쳐 보인다. 여마법사 알치나에 관한 기사 루지예로, 남장을 하고 나타난 루지예로의 약혼녀 브라다만테,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함께 엮인 흥미로운 애증의 변주곡이 감각적인 무대미술과 화려한 의상과 함께 펼쳐진다. 연출가 애드ريان 노블은 18세기 데본셔 공작 부인의 거실에서의 사설 공연을 재현하는 형태로 이를 연출함으로써 시대적 정서성과 바로

크 오페라 고유의 정취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바로크 오페라의 대가 민코프스키의 지휘와 하르테로스과 카사로바를 위시한 일급 성악가들의 열창이 공연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Arthaus 101 576 [DVD]

메노티: 고야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플라시도 도밍고(고야)/ 미첼 브레트(카에타나)/ 이리데 마르티네스(마리아)/ 크리스티안 게르하허(마르틴) 외 / 엠마뉘엘 비욘/ 빈 방송교향악단

이 시대의 위대한 테너 도밍고,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를 열연하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미국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잔 카를로 메노티는 20세기 오페라사에 일획을 그었던 작곡가다. 또한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문화축전을 위해 한국정부에서 위촉했던 작품인 (시집가는 날)의 작곡가로도 우리 음악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고야>는 1986년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에서 세계 초연되었던 메노티의 만년 걸작으로, 근대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인 프란시스코 고야의 이야기를 담은 작곡가 자신의 리브레토를 토대로 완성한 3막의 오페라다. 본 영상은 2004년 빈 클랑보겐 페스티벌 기간 중 테아트 안 더 빈에서 펼쳐졌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이 작품을 위촉한 장본인인 불세출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타이틀 롤을 열연하였고, 남아공 출신의 미모의 메조소프라노 미첼 브레트가 여주인공인 카에타나 공작 부인을 노래하였다. 고야의 걸작인 '마야 부인 연작'의 탄생과 관련된 에피소드와 더불어 당시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던 스페인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이 오페라의 흥미진진한 내용을 친절한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Arthaus 101 578 [DVD]

마이아: 코린트의 메데아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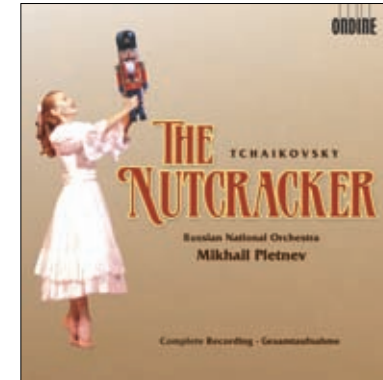
나디아 미카엘(메데아)/ 라몬 바르가스(아손)/ 알라스테어 마일즈(크레온테)/ 엘레나 찰라고바 (크루에사) 외/ 이버 볼튼(지휘)/ 바이에른 슈타츠오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는 메데아의 잔혹한 복수극

메데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악녀 캐릭터다. 메데아는 황금양모의 영웅 아손을 돕기 위해 남동생을 찢어 죽일 정도의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후일 메데아는 아손이 코린트의 공주 크레우사와 결혼하게 되자 그녀는 물론, 아손 사이에서 얻은 자신의 두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아손에게 복수한다. 메데아의 이야기는 후일 여러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금은 케루비니의 <메데아>가 유명하지만,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를 능가하는 큰 인기를 누렸던 메데아 관련 오페라가 있었다. 바로 독일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마이아의 오페라 <코린트의 메데아>가 그것이다. 1813년에 초연되었던 이 작품은 당시의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급속도로 망각되었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평가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었던 명연출가 한스 노이엔펠츠의 2010년 바이에른 슈타츠오페 프로덕션이 한글자막을 갖춘 뛰어난 화질의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Arthaus 108 030 [Blu-ray]

찬란한 명인기와 균질한 관현악이 만들어 낸 차이코프스키의 걸작 발레



ODE1180-2D [2 for 1.5]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전곡
미하일 플레트노프/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크게 호평을 받았던 '백조의 호수'에 이어서 플레트노프와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Ondien을 통해 선보이는 두 번째의 차이코프스키 발레음악 전곡. 차이코프스키의 3대 로맨틱 발레 중에서도 화려하고도 환상적인 배경과 아기자기한 음악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걸작이 플레트노프의 드라마틱한 지휘와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정교한 연주를 통해 한층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www.naxos.com



8.572376

버르톡:
4개의 소품, 피아노 앞에서의 첫 순간, 엘레지 외
예비 안도(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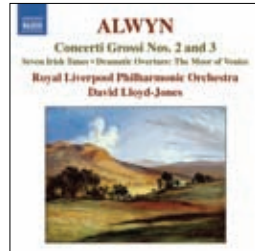
낙소스의 대표 피아니스트로 군림해왔던 예비 안도가 오랜만에 신보를 선보였다. 그의 방대한 레퍼트와 중에서도 가장 자신있는 작곡가인 버르톡의 피아노 소품들 중에서 리스트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초기의 작품들을 수록한 음반이다. 왼손 연습곡을 포함한 4개의 소품과 두 개의 엘레지, 교습용 작품이지만, 음악적인 완성도 역시 빼어난 '피아노 앞에서의 첫 순간' 등을 수록하였다.



8.57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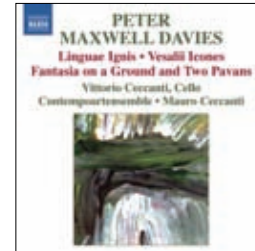
하이든:
피아노트리오 24-26번, 31번
콩스바츠카 피아노 트리오

하이든이 1784년부터 1797년 사이에 완성한 피아노 트리오들은 노거장의 원숙한 필치로 완성한 신선하고도 유취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진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특히 런던 체류 기간 중 친교를 나눴던 레베카 슈뢰터에게 헌정된 작품들이 유명한데, 교향곡 102번의 느린 악장에서 파생된 26번, 마지막의 집시 풍론도 악장이 널리 알려진 25번 등이 특히 인기가 높다.



8.570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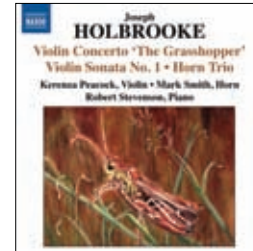
얼윈:
콘체르티 그로스 2,3번, 극적 서곡, 세레나데 외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얼윈의 극적 서곡인 '베네치아의 무어인'은 세익스피어의 비극 '오텔로'의 주요 캐릭터들을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서정적인 세레나데와 친근한 느낌의 선율들로 채워진 7개의 아일랜드 선율은 이번이 최초로 녹음되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장르를 근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체르토 그로스 2번과 3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712

맥스웰 데이비스:
불의 혀, 베살리의 아이콘 외
비토리오 체칸티(vc)/ 마우로 체칸티/ 콘템포아트 앙상블

첼로 독주와 챔버 앙상블을 위한 작품인 '불의 혀'(Lingua Ignas)는 플레인 찬트의 선율과 리드미컬한 댄스 풍의 패시지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작품이며, 역시 같은 악기 편성을 위한 '베살리의 아이콘'은 벨기에의 과학자 베살리우스의 인체해부도에서 받은 영감과 예수의 마지막 수난 과정을 교묘하게 엮은 종교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퍼셀의 선율을 토대로 완성한 그라운드와 두 개의 파반에 의한 판타지아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649

홀브루크:
바이올린소나타 1,2번, 호른 트리오
케렌타 피크(vn)
마크 스미스(hrn)
로버트 스티븐슨(pf)

조셉 홀브루크는 피아니스트로 처음 두각을 드러내었으나, 이후 20세기 전반기 영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은 대중음악에도 물입했던 이 작곡가의 친근한 불임성을 새삼 떠올리게 하며, '메뚜기'라는 부제의 바이올린소나타 2번은 오케스트레이션 이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도 발표되었던 작품이다. 브람스를 연상케 하는 호른 트리오를 함께 담았다.



8.570876

피제티:
현악사중주 1,2번
라이타 퀴텐

피제티는 레스피기, 카셀라, 말리피에로와 더불어 20세기 전반기 이탈리아 기악음악을 주도했던 일군의 작곡가들 중 한 사람으로, 특히 실내악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현악사중주 1번은 작곡가의 고향인 북이탈리아의 민속음악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드보르작의 현악사중주에서 느낄 수 있는 시골의 소박한 정취를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원숙기의 작품인 현악사중주 2번은 보다 근대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8.572366

소레:
동양의 추억, LA의 추억, 마음 풍경 외
미치 위안츠코(vn)
디나 바인쉬테인(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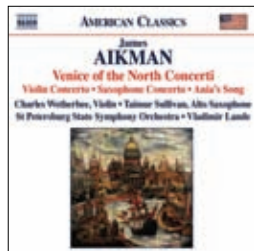
에밀 소레는 19/20세기 전환기에 활약했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였다. 그는 대서양 양안을 오가면서 연주로서 명성을 다졌고, 자신의 리사이틀을 위해 기교적이고도 풍부한 선율미를 자랑하는 연주회용 소품을 다수 작곡하였다. LA와 콘스탄티노플을 대상으로 한 두 편의 수베니어와 더불어 목가적인 정취를 표제적으로 묘사한 마음 풍경, 나비의 움직임 음악으로 옮긴 '나비' 등이 수록되었다.



8.570337

마츠무라:
교향곡 1,2번, 계세마네의 밤
타쿠오 유아사
아일랜드 RTE 국립교향악단

테이초 마츠무라는 전후 일본 음악계를 이끌었던 주요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그의 교향곡 1번은 대지를 뒤흔든 무수한 메뚜기 무리의 이미지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듯한 작품이며, 피아노협주곡 풍의 교향곡 2번과 그의 마지막 관현악곡인 '계세마네의 밤'은 각각 나라의 한 불교사원에 있는 인왕상과 조토의 프레스코화 '예수에게 입맞추는 유다'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다.



8.559720

에이크만:
바이올린협주곡, 색소폰협주곡,
아니아의 노래
찰스 웨더비(vn)
태이머 설리번(sax)
블라디미르 란데
상트 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제임스 에이크만의 작품세계는 창의적이면서도 불임성이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본 앨범에 수록된 3편의 작품은 재즈와 팝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스타일들을 포괄하고 있다. 현악합주를 위한 애상적인 작품인 아미아의 노래 외에도 즉흥연주적인 요소가 강조된 바이올린협주곡 'Lines in Motion'과 효과적인 대위법을 활용한 색소폰협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567

페리:
무성영화시대의 음악들(제미니
협주곡 외)
여러 연주자들/ 폴 필립스
아일랜드 RTE 국립교향악단

윌리엄 페리는 무성영화의 복원에 큰 열의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이다. 그는 100편 이상의 무성영화의 배경음악을 새롭게 작곡하였는데, 본 앨범에는 자신의 무성영화음악들을 토대로 클래식하게 재구성한 3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그리고 관현악을 위한 제미니 협주곡,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랩소디인 '무성시대', 6개의 영화 타이틀 음악이 바로 그것들이다.



8.572732

티첼리: 교향곡 2번, 건축물의 천사들
바세트: 9중주, 발품: 관악교향곡
토마스 리드
MTSU 관악앙상블

브라스 밴드를 위한 티첼리의 교향곡 2번은 '별뿔별', '새로운 달 아래의 꿈', '해방된 아폴로'라는 제목이 붙은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리드미컬한 작품이다. 같은 작곡가의 '건축물의 천사들'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풀리처 상 수상 작곡가인 레즐리 바셋의 9중주와 2007년 뮤지컬 아메리카의 올해의 작곡가로 선정된 윌리엄 필립스의 밴드를 위한 교향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023

로에이유 드 강:
리코더 소나타
다니엘 로테르(rec)/ 케틸 하
육산트(cemb)/ 바네사 영(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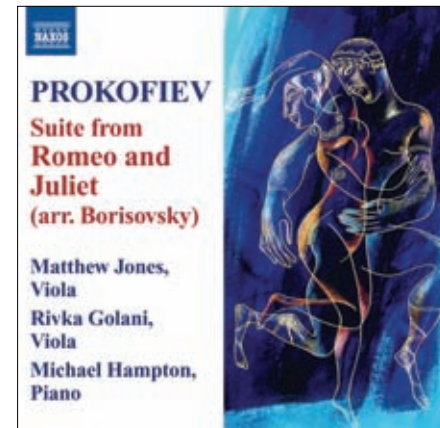
로에이유 드 강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는 북 프랑스와 런던에서 꽤나 유명한 음악 가문 출신의 작곡가였으며, 리코더의 명수였다. 그의 리코더 소나타들은 코렐리의 소나타를 충실히 모방한 작품들로, 이탈리아의 양식 위에 프랑스의 우아한 기운을 더한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다니엘 로테르트는 펠른 챔버와 함께한 바흐와 텔레만 음반들로 낮은 가나 혈통의 독일 리코더 연주자다.



8.572753

알파노:
바이올린소나타, 피아노중주,
네니아와 스케르치노
엘미라 다르바로바, 마리 앤 멀
(vn)/ 크랙 멀(va)/ 사무엘 마길
(vc)/ 스캇 던(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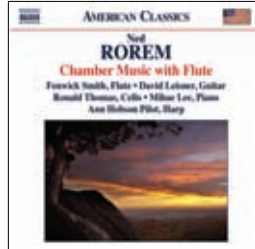
알파노는 푸치니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투란도트'의 마지막을 완성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정작 자신의 작품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데, 낙소스의 알파노 실내악 시리즈가 이 작곡가에 대한 공중증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올린 소나타는 드뷔시와 라벨의 영향이 느껴지는 대작이며, 피아노중주는 당대의 무조음악을 배경하고 서정적인 선율미를 추구했던 이 작곡가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8.572318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매튜 존스(va)
마이클 햄튼(pf)

프로코피에프를 대표하는 발레 걸작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연주회용 관현악 모음곡이나 피아노 독주 편곡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본 신보는 구소련의 대표적인 비올라 연주자이자 베토벤 퀸트의 창단 멤버인 바딤 바실리에비치 보리스프스키가 비올라와 피아노 이중주를 위해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폭넓은 음악과 현란한 연주기교를 통해 독주악기로 화려하게 변신한 비올라의 매력이 눈부시다.



8.559674
로렘:
 플루트를 위한 실내악 작품들
 팬익 스미스(fl)/ 이미해(pf)/ 데이비드 레이즈너(guitar)/ 로날드 토마스(vc)

뚜렷한 감성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네드 로렘의 작품 세계는 플루트의 투명한 소노리티와 좋은 조화를 만들어낸다. 켄터키 지방의 포크 음악을 차용한 '마운틴 송', 명상적인 분위기와 스펙터클한 패시지가 교차하는 '네 가지 기도', 성무일과의 각 파트를 플루트와 하프리로 표현한 '시간의 책',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로미오와 줄리엣', 플루트와 첼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가 함께 수록되었다.



8.559687
썬켈레:
 캐츠킬 산맥에서의 일년, 드림댄스 외
 블레어 목관 오중주단/ 펠릭스 왕(vc)/ 멜리사 로즈(pf)

피터 썬켈레는 PDQ 바흐라는 가명으로 일련의 유사 바로크 음악을 선보였던 괴짜 작곡가다. 그는 자신의 본명으로도 진지하고도 완성도 높은 창작활동을 활발히 펼쳤는데, 다양한 악기조합을 위한 실내악들을 담은 본 음반에서도 그의 위트 넘치는 음악 세계가 확연히 드러난다. 바로크에서 재즈까지 포괄하는 캐츠킬 산맥에서의 일년 외에도 바로크 사라방드와 지루박이 공존하는 드림 댄스 등이 인상적이다.



8.572727
파블로 가리바이 기타 리사이틀
 스키타라타: 소나타 K213, 380
 폰체: 소나타 III
 호세: 소나타
 타레가: 소품들

2010년 타레가 공쿠르 우승자인 멕시코 출신의 젊은 기대주 파블로 가리바이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 스키타라타의 건반소나타 두 편의 기타 편곡을 비롯하여, 20세기 전반기 멕시코와 스페인을 대표하는 기타음악 작곡가들인 마누엘 폰체와 안토니오 호세의 기타 소나타들, 그리고 아랍 풍의 카프리초, 라그리마, 오레무스 등을 비롯한 타레가의 유명 기타 소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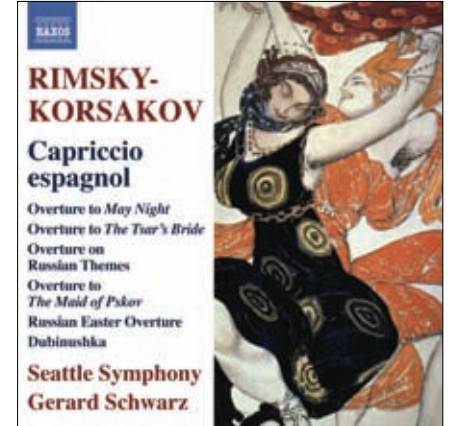
8.559662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미국 소품들 (글래스, 다니엘포어, 힉턴 외)
 팀 페인(vn)
 페이 야오 왕(pf)

나탈리 포트만 주연의 영화 '블랙 스완'의 사운드트랙에 참여하면서 주목받았던 미국의 젊은 바이올린 기대주 팀 페인이 다양한 음악사조를 아우르는 여러 미국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소품들을 모았다. 글래스의 미니멀뮤직, 발캄의 향수어린 랙 작품, 푸초의 서정적인 '아리아', 저빈의 복고풍 작품인 '시실리엔' 외에도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미국 작곡가들인 힉턴과 다니엘포어의 매력적인 소품들 까지 함께 수록되었다.



8.570216
세이사스:
 하프시코드 소나타 Vol.2
 데보라 할라스(cemb)

포르투갈 출신의 카를로스 데 세이사스(1704-42)는 바로크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비르투오조로 활약했으나, 38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짧은 생애동안 100여 편에 달하는 건반소나타를 남겼는데, 이들은 스키타라타의 그것에 필적하는 우수한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현란한 기교를 요구하는 19, 24, 44번이 인상적이다. 브라질 출신의 하프시코드주자 데보라 할라스가 1734년에 제작된 하스 모델의 복제품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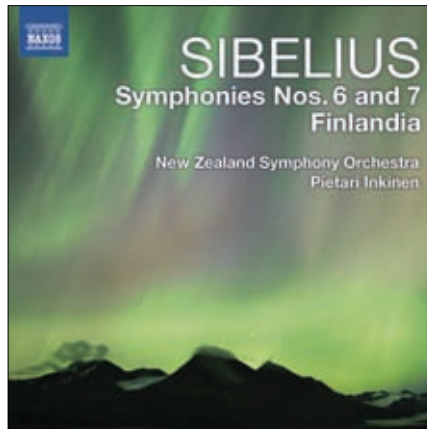
8.572788
림스키코르사코프:
 스페인 카프리치오, 러시아 부활절 서곡 및 오페라 서곡
 제러드 슈워츠
 시에를 심포니

앞서 선보였던 '세헤라자데'의 큰 성공에 이어서 제러드 슈워츠와 시에를 심포니가 선보이는 두 번째 림스키-코르사코프 관현악 작품집. 스페인의 이국적인 정취를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스페인 카프리치오'와 국민주의 성향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스펙터클한 작품인 '러시아 부활절 서곡', 그의 대표 오페라들인 '5월 밤', '차르의 신부', '츠코프의 아가씨'를 위한 서곡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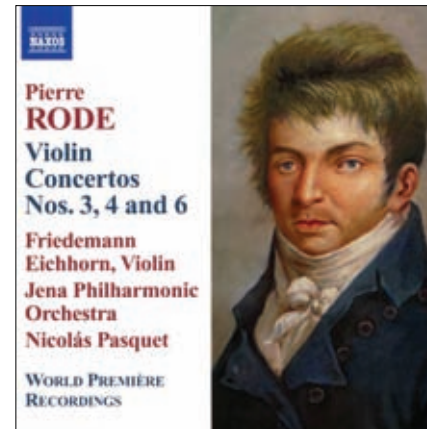
8.571284-85 (2CDs)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이탈리아의 해롤드 (피아노 편곡)
 이딜 비렛(pf)
 루센 귀네슈(va)

이딜 비렛은 1992년 낙소스를 통해서도 리스트가 편곡한 환상교향곡의 피아노버전을 녹음한 바 있지만, 본 음반의 연주는 피나다 레코드를 통해 LP로 발매되었던 1978년의 레코딩을 CD 포맷으로 최초 재발매한 것이다. 낙소스 레코딩에 비해 한결 파워풀하고 긴장감 넘치는 연주를 만날 수 있다. 함께 수록된 이탈리아의 해롤드를 리스트가 비올라와 피아노 이중주를 위해 편곡한 것으로 2011년의 최신 레코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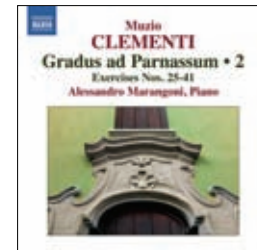
8.572705
시벨리우스:
 교향곡 6번, 7번, 핀란드어
 피에타리 인키넨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낙소스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핀란드 출신의 젊은 마에스트로 피에타리 인키넨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사이클 제 4탄. 작곡가 스스로 첫눈의 정경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했던 교향곡 6번과 시벨리우스의 파르시팔이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브라스 코랄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 단약장의 교향곡 7번을 담았으며, 조곡애를 강건하게 표현한 작곡가의 대표작 '핀란드어'도 함께 수록되었다.



8.570767
로드:
 바이올린협주곡 3,4,6번
 프리드리만 아이흐호른(vn)
 니콜라스 파스케
 예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비외티의 제자인 피에르 로드는 19세기 초반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린의 거장이었다. 그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치는 파가니니의 작품과 쌍벽을 이루는 작품으로 유명하며, 자신의 화려한 초절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바이올린협주곡들도 13곡이나 남겼다. 신보에는 그의 가장 유명한 협주곡인 6번을 비롯하여, 화려한 기교를 요구하는 3번, 서정성이 돋보이는 4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326
클레멘티: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Vol.2
 알레산드로 마라고니(pf)

무치오 클레멘티는 피아노 비르투오조의 선구자 격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3권의 책으로 구성된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은 피아노에 대한 이 작곡가의 모든 노하우가 집대성된 방대한 규모의 기념비적인 피아노연습곡집이다. 낙소스를 통해 선보인 로시니 피아노작품 시리즈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탈리아의 젊은 기대주 알레산드로 마라고니 간결 명료한 연주가 빛난다.



8.572706
브리튼:
 스코틀랜드의 노래 전곡
 마크 와일드(te)
 루시 웨이크포드(harp)
 데이비드 오웬 노리스(pf)

스코틀랜드의 음악적 전통에 깊이 빠져있던 브리튼은 로버트 번스의 텍스트에 기초하여 자신의 마지막 연가곡인 'A Birthday Hansel'을 완성하였다. 또 다른 연가곡인 'Who are These Children?' 역시 스코틀랜드 시인 윌리엄 사우터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이들 두 연가곡 외에도 스코틀랜드 민요의 선율들을 토대로 브리튼이 완성한 가곡들이 스코틀랜드가 자랑하는 젊은 테너 마크 와일드의 미성으로 수록되었다.



8.572211
펜데레츠키:
 비올라협주곡, 첼로협주곡 2번
 그리고리 지슬린(va)/ 타타나 바실리에바(vc)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펜데레츠키를 대표하는 두 편의 협주곡을 함께 수록한 음반. 첼로협주곡 2번은 로스트로포비치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이전에 비해 보다 로맨틱한 성향이 강해진 작곡가의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 이듬해에 완성된 비올라협주곡은 보다 기교지향적이고 복잡한 악곡구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인 그리고리 지슬린과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 우승자인 타타나 바실리에바가 연주를 맡았다.



8.572525
파트:
 피아노작품집
 랄프 반 라트(pf)/ 조안 팔레타/
 네덜란드 라디오 챔버 필하모닉
 '틴티나볼리움'이라는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유명한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보 파트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모은 음반. 작곡가로서 막 입문하던 무렵인 1950년대 후반의 작품들인 2개의 소나티네로부터 2006년도에 완성한 '안나 마리아를 위하여'에 이르기까지 무조에서 현재의 명상적인 스타일에 이르기까지의 음악 스타일의 변화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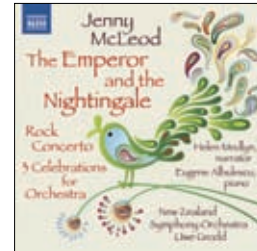
8.572468
쇼송:
 바이올린과 피아노, 현악사중주를 위한 협주곡, 피아노트리오
 에릭 라르센(pf), 스티븐 쉘스(vn)
 비한 퀴텟/ 메도우마운트 트리오
 바이올린과 피아노 그리고 현악사중주를 위한 쇼송의 협주곡 D장조는 매력적인 아름다움과 로맨틱한 열정이 가득 담긴 작품으로, 이자이가 바이올린 파트를 연주했던 초연 무대의 큰 성공 이후 지금까지도 근대 프랑스 실내악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사랑받고 있다. 작곡가의 청년기에 완성한 피아노트리오는 선배인 프랑크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8.559678
슈윌트너:
 타악기협주곡, 아침의 포용, 빛을 따라서...
 크리스토퍼 램(perc)
 잔카를로 게레로/ 내시빌 심포니
 1979년 풀리처 상 수상자인 조셉 슈윌트너는 드라마틱한 스타일과 매력적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현대 미국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작곡가다. 그가 살고 있는 뉴햄프셔의 전원에서 맞이하는 일출의 장엄함을 음악으로 표현한 '아침의 포용'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후속작인 '빛을 따라서...' , 독주자의 뛰어난 기교를 요구하는 난곡인 타악기협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409
말리피에로:
 임프레시오니 1-3, 침묵의 멈춤 1,2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디 로마
 말리피에로의 개성적인 음악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다섯 편의 관현악곡을 수록한 음반. '살로부터의 인상' 3부작은 이탈리아의 자연과 전원생활에 대한 감흥을 묘사적인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세 종류의 새를 묘사한 1부와 카프리 섬의 열정적인 타란텔라로 마무리되는 3부가 특히 인상적이다. 전혀 상반된 분위기의 두 작품으로 구성된 미스터리한 작품인 '고요의 깨어짐' 연작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671
맥레오드:
 황제와 나이팅게일, 락 콘체르토, 3개의 축전
 헬렌 메들린(narr)/ 유진 알볼레스쿠(pf)/ 우베 그로트/ 뉴질랜드 심포니
 뉴질랜드의 여류 작곡가 제니 맥레오드의 천진하고도 유쾌발랄한 음악세계를 담은 음반. 안데르센의 동명 동화를 토대로 색채적인 관현악과 낭송을 위해 완성한 작품인 '황제와 나이팅게일', 뉴질랜드 타란델라로 마무리되는 3부가 특히 인상적이다. 전혀 상반된 분위기의 두 작품으로 구성된 미스터리한 작품인 '고요의 깨어짐' 연작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533
비올라를 위한 작품들 (마르티누, 코다이, 도흐나니, 요아힘, 에네스쿠)
 사라 제인 브래들리(va)
 안소니 휴렛(pf)
 동유럽의 다섯 작곡가들이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해 완성한 작품들을 담았다. 각 나라의 향토색과 더불어 비올라 특유의 넓은 음역대를 적극 활용한 농밀한 서정성과 낭송을 위해 완성한 작품인 '황제와 나이팅게일', 뉴질랜드 타란델라로 마무리되는 3부가 특히 인상적이다. 전혀 상반된 분위기의 두 작품으로 구성된 미스터리한 작품인 '고요의 깨어짐' 연작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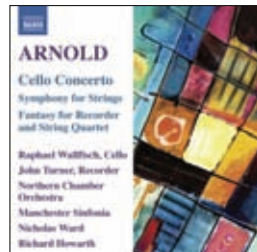
8.572312
이르겐스-엔센:
 교향곡 d단조, 에어, 파사칼리아
 비아르테 엔세세트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그 이후에 등장한 노르웨이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인 루드비그 이르겐스-엔센은 일생 동안 딱 한 편의 교향곡만을 완성하였는데, 2차 대전 중 나치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기에 완성된 작품답게 우울한 분위기가 작품 전반을 지배한다. 토스카니니가 극찬을 했던 이 작곡가의 대표 관현악곡인 파사칼리아와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에어가 함께 수록되었다.



8.559700
한슨:
 교향곡 1번 '노르딕', 베오울프를 위한 애가
 제러드 슈윌츠
 시애틀 심포니와 합창단
 20세기 미국의 대표 심포니스트인 하워드 한슨의 교향곡 1번 '노르딕'은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북구의 고요한 서정을 담은 중간 악장을 활기로 가득 채워진 빠른 두 악장이 감싸고 있다. 북구의 고대 설화에 기초한 E23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베오울프를 위한 애가' 역시 강력한 힘과 드라마틱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발표 당시 큰 호평을 받았던 Delos의 음원을 재발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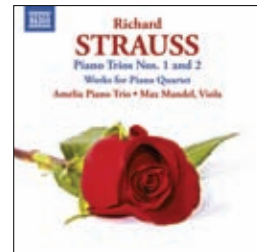
8.572765
라이언:
 교향곡 1번 '달아나는 색깔들', 삼중협주곡 '등변체' 외
 그리핀 트리오/ 브람웰 토비/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재 캐나다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인 제프리 라이언은 밝고 화려한 색채감을 통해 만들어진 상상력 풍부한 음악세계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피치를 지닌 소리들의 조합을 통해 빛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인 '빛의 직진성', 제목 그대로 독주악기들의 균형감 있는 활약을 담은 피아노트리오와 관현악을 위한 삼중협주곡 '등변체', 오케스트라의 비르투오시티를 요구했던 난곡인 교향곡 1번을 담았다.



8.572640
아놀드:
 첼로협주곡, 콘체르티노, 색소폰 협주곡, 현을 위한 교향곡 외
 라파엘 월피시(vc)/ 칼 레이븐(sax)/ 리처드 하위스/ 멘체스터 심포니
 2006년 사랑한 말씀 아놀드는 20세기 영국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이름이다. 본 음반에는 서정성이 돋보이는 플루트 콘체르티노와 기교적인 화려함이 빛나는 리코더와 현을 위한 판타지, 독주악기의 독특한 음색을 대담하게 활용한 색소폰협주곡, 노작곡가의 심원한 음악적 깊이를 담은 첼로협주곡과 더불어 강인한 역동성이 느껴지는 작품인 현을 위한 교향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564
비아-로호:
 첼로소나타, 라멘토, 엑스프레시오네스 외
 아시에로 플로(vc)/ 아마미야 시 피트리아(pf)/라파엘 로메로 심포니
 헤수스 비아-로호는 현재 스페인 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특별히 첼로의 중저음을 사랑했던 그는 이 악기를 위해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완성하였다. 제목 그대로 명상적인 분위기를 담은 작품인 '고요한 기도',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무반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인 '엑스프레시오네스', 플라멩고 스타일의 노래를 차용한 '라멘토',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망라하는 첼로소나타를 함께 담았다.



8.570896
R. 슈트라우스:
 피아노트리오 1,2번, 피아노 퀴벳을 위한 2개의 소품 외
 아벨리아 트리오/ 막스 만델(va)
 음반에 수록된 R 슈트라우스의 초기 실내악들은 비록 자주 연주되는 레퍼토리는 아니지만, 후기 낭만주의 특유의 농밀한 서정성을 가득 채워진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시대 초반의 작품인 피아노트리오 1번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전통을 충실히 좇은 고전적 양식이 돋보이며, 일년 뒤의 작품인 피아노트리오 2번에서는 짧은 시간안에 한결 농익은 작곡가의 창조력을 엿볼 수 있다.



8.571286
리스트:
 12개의 에튀드, 3개의 연주회용 에튀드 외
 이딜 비렛(pf)
 리스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터키의 국보급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이 그의 에튀드 시리즈를 새롭게 녹음하였다. 2011년 4월의 최신 레코딩으로 12개의 에튀드 S136과 3개의 연주회용 에튀드 S144, 2개의 연주회용 에튀드를 함께 수록하였으며, 베르디 리콜레토의 선율에 의한 파라프레이즈와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의 피아노 독주용 편곡이 음반의 여백을 빼곡히 채웠다.



8.572660
츄를리오니스:
 전주곡, 3개의 가을 소품 외
 무자 루바츠키테(pf)
 츄를리오니스는 화가이자 작곡가로서 19/20세기 전환기 리투아니아 예술계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물이었다. 낭만주의를 지향했던 그의 초기 피아노작품들에서는 이 나라의 독특한 민속음악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자신이 유학했던 나라들인 폴란드와 독일의 영향도 함께 드러난다. 쇼팽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의 전주곡 연작들과 더불어 연주자 루바츠키테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현악사중주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455
투리나:
 여행 앨범, 바다여행, 마요르카, 엽서, 에보카시오네스
 호르디 마소(pf)

호르디 마소가 진행 중인 투리나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 시리즈의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본 신보에는 여행을 테마로한 작품들이 중점적으로 수록되었다. 드뷔시의 인상주의에 경도된 '바다여행' 과 한 편의 음화와도 같은 작품인 '여행 앨범', 고탕 카탈루냐에 대한 애정을 담은 '에보카시오네스', 바스크,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등지의 향토색을 모은 '엽서', 유명한 휴양지의 전설을 소재로 한 '마요르카'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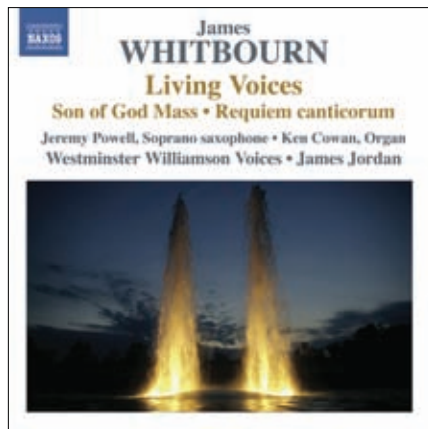
8.572440
스크라빈:
 피아노소나타 1, 4, 8번,
 시곡 연작
 알렉산더 긴딘

2007년 클리블랜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긴딘이 스크라빈의 작품들만으로 독집을 구성하였다. 청년기 작곡가의 열정과 불안을 담은 소나타 1번, 독특한 음악 스타일이 정립되던 무렵의 소나타 4번,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소나타 8번을 함께 연주하였으며, 몽환적인 음악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편의 시편 연작들도 함께 수록하였다.



8.572843
아나벨 몬테시노스 기타 리사이틀
 그라나도스, 파야, 요베트, 로드리고, 소르, 푸졸, 로페스-키로가

2002년 타레가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이미 낙소스를 통해 리사이틀 음반을 선보였던 스페인의 여류 기타리스트 아나벨 몬테시노스가 2010년 미켈레 피탈루가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또 다시 낙소스에서 음반을 발매하였다. 요벳, 푸졸, 소르, 로드리고와 같은 자국 기타 작곡가들의 작품 외에도 파야, 그라나도스의 작품을 기타로 편곡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8.572737
휘트번:
 신의 아들 미사, 레퀴엠 칸티코롬, 남아공을 위한 기도 외
 제레미 파웰(sax)/ 켈 코윈(org)/ 제임스 조던
 웨스트민스터 윌리엄슨 보이시스

제임스 휘트번은 합창음악과 TV 배경음악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영국의 젊은 작곡가이다. 신의 아들 미사는 자신이 담당했던 이스라엘 성지를 다룬 BBC의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을 재활용하여 완성한 작품으로 색소폰과 오르간을 활용한 반주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9/11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작인 'Living Voices'와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감상을 담은 '레퀴엠 칸티코롬' 등을 수록하였다.



8.572685
세일러:
 스나크 사냥, 옛 무성 코미디를 위한 새 음악
 칸타타 챔버 싱어즈/ 기셀 벡커
 홀튼 암스 로위 스쿨 합창단/ 더 스나크 앙상블

'스나크 사냥'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롤이 완성한 또 하나의 환상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미국 작곡가 모리스 세일러는 하모니카, 베이스 아코디언, 빨래통 등의 독특한 악기(?)들을 활용하여 이 미스터리한 작품에 걸맞은 독특한 스타일의 합창음악을 완성하였다. 다른 두 작곡가와 함께 완성한 무성 코미디를 위한 음악은 재즈 스타일의 활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8.112063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20, 21번 '발트슈타인', 23번 '열정', 28, 30번
 발터 기제킹(pf)

20세기 중반 독일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군림했던 발터 기제킹이 1938년부터 1940년 사이에 녹음했던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다섯 편이 수록되었다. 그라모폰을 통해 '놀라운 정도로 폭넓은 음색과 한치 흐트러짐 없는 감수성, 생동감 넘치는 리듬을 담은 연주'라는 평을 받은 '발트슈타인'과 '미묘한 누앙스와 감성적인 활력을 담은 연주'로 호평을 얻은 '열정'이 특히 빼어나다.



Ondine
 www.ondine.net



ODE1188-2
베를리오즈: 이탈리아의 해롤드
 파가니니: 그랜드 비올라 소나타
 데이비드 아론 카펜터(va)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헬싱키 필하모닉

데뷔 레코딩인 엘가 첼로협주곡(비올라 편곡) 앨범이 그라모폰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25세의 젊은 비올라 비르투오조 데이비드 아론 카펜터의 두 번째 온디 레코딩. 비올라를 위한 가장 유명한 협주곡 중의 대작인 베를리오즈의 '이탈리아의 해롤드'와 더불어 파가니니의 놀라운 작품인 비올라와 관현악을 위한 소나타를 함께 수록하였다.



Toccata
 www.toccataclassics.com



TOCC-0127
바실렌코: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전집
 엘레나 아르타모노바(va)/ 니콜라스 워커(pf)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바실렌코는 19세기의 국민주의 작곡가들과 자신의 스승이었던 타네예프와 스크랴인 등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다. 본 음반의 수록곡들 중 비올라소나타를 제외한 작품들은 이번에 최초 레코딩된 것들로, 평생동안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자신의 창조적 열정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해야만 했던 이 작곡가의 음악스타일을 잘 반영해준다.



Unicef
 www.naxos.com



UNI201001
Children First (유니세프 스페셜 앨범)
 안토니오 반데라스, 안네 소피 폰 오터,
 바바라 헨드릭스, 보 스코부스 외

'Children First'는 세계 각지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특별한 자선음반이다. 덴마크 작곡가 카르스텐 뢰르흐가 작곡한 13편의 노래를 위해 카리스마 넘치는 영화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를 비롯하여 정상급 성악가들인 안네 소피 폰 오터, 바바라 헨드릭스, 보 스코부스, 카밀라 니론트, 잉에 담 앤센 등이 레코딩에 참여하였다.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06904

201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4번, 볼레즈: 노타시옹 I-IV, VII, 브루크너: 테 데움
 도로테아 뢰슈만(sop), 엘리나 가란차(ms),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그트(te), 르네 파페(bass)/
 다니엘 바렌보임(pf, cond)/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시대 최고의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브루크너의 가장 위대한 종교합창곡

201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그 오프닝 콘서트에서부터 화려함과 풍성함을 맘껏 자랑하였다. 피아노와 지휘 양 분야 모두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와 독주 일인이역으로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4번을 아름답게 연주하였으며, 피에르 볼레즈의 대표 관현악 중 하나인 '노타시옹' 연작을 눈과 귀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후기낭만시대의 종교합창곡을 대표하는 브루크너의 걸작인 '테 데움'이 장식한다. 작곡가의 후기 교향곡들에 뒤지지 않는 장대한 스케일과 당당한 박력으로 신을 소리 높여 찬미하는 이 위대한 작품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성악가들인 뢰슈만, 가란차, 플로리안 포그트, 파페의 열창과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과 빈 필하모닉의 뛰어난 앙상블, 그리고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브루크너리언의 한 사람인 바렌보임의 명쾌한 지휘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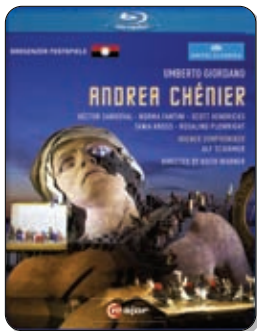
C Major 707404

비제: 카르멘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베아트리스 위리아-몽중(카르멘)/ 로베르토 알라냐(돈 호세)/ 어윈 슈로트(에스카미요)/ 마리아 포플라프스 카야(미카엘라) 외/ 마르크 피올레(지휘)/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이 시대를 대표하는 카르멘과 돈 호세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

'오페라계의 도살자'로 악명 높은 화제의 연출가 칼릭스토 비에이토의 <카르멘>이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2010년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을 위해 연출한 최신 프로덕션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카르멘과 돈 호세인 베아트리스 위리아-몽중과 로베르토 알라냐, 그리고 네트렙코의 남자라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서 오페라계의 새로운 히어로로 급주가를 올리고 있는 바리톤 어윈 슈로트가 한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한다. 비에이토의 이전 연출작들에 비해 선정성과 폭력의 강도가 다소 줄어든 편이지만, 현대적이고도 암울한 배경 위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여정은 21세기 우리 주변에서도 이 악녀의 이야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될 수 있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보다 통상적으로 공연되는 레지타티보를 적용한 개정본전에 의한 연주이며,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이 이 위대한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도와줄 것이다.



C Major 708008

조르다노: 안드레아 세니에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헥토르 산도발(세니에)/ 스캇 헨드릭스(제라르)/ 노르마 판티니(마달레나) 외/ 울프 쉬르머/ 빈 심포니커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는 브레겐츠의 화려한 호반무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국경에 위치한 보덴호수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성대한 오페라의 축전이 펼쳐진다. 호수의 수면 위에 설치되는 스펙터클한 무대미술로 유명한 브레겐츠 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광활한 호수면에서 펼쳐지는 공연인 만큼 불가피하게 가수들이 마이크를 이용해야만 하는 약점이 있지만,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한 화려한 무대미술과 독특한 연출로 유럽을 대표하는 오페라 축제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브레겐츠의 무대에 오른 오페라는 조르다노의 대표작인 <안드레아 세니에>다. 프랑스 대혁명기의 혼란 속에서 희생된 젊은 시인의 열정을 다룬 이 오페라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조국의 적', '5월의 아름다운 어느날'과 같은 빼어난 선율의 아리아들과 죽음을 초월한 감동적인 사랑을 다룬 극적인 스토리로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작이다. 다비드의 유명한 그림인 '마라의 죽음'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거대한 무대 위에서 멕시코의 새로운 드라마틱 테너 기대주 헥토르 산도발이 영웅적인 세니에를 열연하였다.



C Major 707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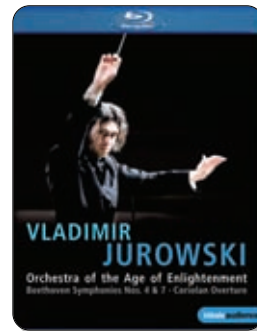
리스트: 파우스트 교향곡

바그너: 파우스트 서곡
 엔드릭 보트리히(테너)/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포켈레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포켈레의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콘서트

게르만 마에스트로 계보의 적통으로 각광받고 있는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2012/13 시즌부터 드레스덴 슈타츠포켈레의 수석지휘자에 정식으로 취임할 예정이지만, 이미 이 악단의 여러 주요한 콘서트들을 직접 지휘하면서 독특한 파트너십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본 영상물은 2011년 2월 21/22일 드레스덴 젬퍼오퍼에서 있었던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콘서트를 담은 것으로, 작곡가가 남긴 가장 큰 스케일의 관현악작품인 파우스트 교향곡이 메인 프로그램을 장식하였다. 괴테의 걸작 '파우스트'의 세 주인공들인 파우스트, 그레첸, 메피스토펠레스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3개의 악장과 테너 솔로와 남성합창이 노래하는 신비의 합창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작곡가 특유의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의 매력과 더불어 문학작품에서 얻은 창조적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표제작의 가장 우수한 예로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파우스트와 관련된 또 하나의 작품이 함께 수록되었다. 리스트의 사위이자 절친한 동료였던 바그너의 작품인 '파우스트 서곡'이 바로 그것이다.

www.ideal audience.com



Ideale audience 3079294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교향곡 4,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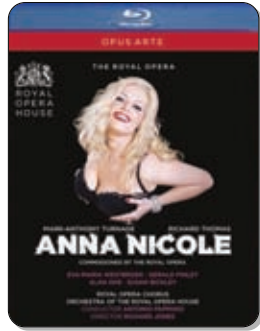
블라디미르 유롭스키/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시대악기의 명징한 사운드와 젊은 지휘자의 기백으로 빛어낸 베토벤 교향곡

러시아 출신의 지휘자 블라디미르 유롭스키는 현재 영국 음악계를 선도해가는 젊은 마에스트로 그룹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화제의 뮤지션이다. 그는 현재 런던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와 글라인드 본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겸하면서 콘서트와 오페라 양 분야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의 다재능함은 시대악기연주 분야까지 포함하는데, 그는 현재 사이먼 래틀, 이반 피셔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인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상임아티스트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 영상물은 2010년 2월 4일 파리 상젤리제 극장에서 있었던 콘서트실황을 담은 것으로, 바로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베토벤의 교향곡 4,7번을 연주한 것이다. 시대악기에 의한 베토벤 교향곡 연주는 한 때의 큰 유행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영상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렇기에 유롭스키의 생기로운 해석과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탄탄한 합주가 결합된 이번 신보가 많은 베토벤 애호가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BD7088D

터니지: 안나 니콜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로엑(안나)/ 수잔 빅클리(버지)/ 제레미 화이트(호간)/ 레베카 드 폰트 데이비스(케이)/ 제럴드 핀리(스텐) 외/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팜프 파탈의 생애를 담은 흥미만점의 현대 오페라

'안나 니콜'을 기억하는가? 1994년 무려 63살 연상의 석유재벌과 결혼함으로써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던 금발의 게스 청바지 모델이라면 보다 쉽게 기억이 날 것이다. 결혼가정 출신인 이 여인은 우여곡절 끝에 플레이보이 메이트로서 큰 성공을 거둔다. 이후 각종 모델로 잘 나가던 그녀는 죽음을 목전에 둔 늙은 갑부와의 속미는 결혼을 통해 인생역전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유족들과의 지루한 소송 도중에 의문사를 당하면서 안나 니콜의 스토리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다. 영국의 대표 작곡가 마크-안소니 터니지는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한 편의 멋진 크로스오버 오페라로 완성하였다. 전설적인 재즈 드러머 피터 어스킨과 레드 제플린의 베이스시드였던 존 폴 존스 등이 창작과정에 영감을 주었는데, 이들은 2막의 파티장면에서 밴드 역할로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갖가지 기발한 무대장치들을 총동원한 리처드 존스의 감각적인 연출과 더불어 스포트라이트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로엑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이 이 독특한 오페라를 한층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준다.



OpusArte OABD7089D

야나ček: 예누파

아만다 루크로프트(예누파)/ 데보라 폴라스키(코스텔니츠카)/ 미로슬라프 드보르스키(라카)/ 니콜라이 슈코프(슈테바) 외/ 이버 볼튼(지휘)/ 테아트르 레알, 마드리드

정상급 성악가들이 열연으로 빛어낸 야나ček 최고의 오페라 걸작

야나ček은 19/20세기 전환기를 대표하는 체코의 오페라 작곡가다. 첫 성공작 '예누파' 외에도 '카자 카바노바', '교활한 새끼여우', '미크로폴로스 사건', '죽은 자의 집에서' 등이 유명하다. 예누파와 두 사촌 슈테바와 라카들은 이복형제다) 사이의 엇갈린 사랑과 양어머니 코스텔니츠카로 대변되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함께 만들어낸 비극을 다룬 이 오페라에는 1막에 등장하는 흥겨운 모라비아 민요와 춤, 예누파와 라카의 이중창, 2막에서 코스텔니츠카가 노래하는 무시무시한 모놀로그 'Co Chivla...', 3막의 혼례의 합창과 마지막 이중창 등등의 매력적인 부분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본 영상에 수록된 '예누파'는 2009년 12월 마드리드의 레알 오페라극장에서 있었던 슈테판 브라운슈바흐의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아만다 루크로프트, 데보라 폴라스키, 미로슬라프 드보르스키 등이 정상급 가수들의 뛰어난 가창과 연기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심리변화와 이 작품에 담긴 모라비아의 향토적인 색채가 효과적으로 부각되었다.

베르디: 시칠리아의 저녁기도 (프랑스어 버전)

바르바라 하베르만(엘렌)/ 부카르트 프리츠(앙리)/ 알레안드로 마르코-부르메스터(귀)/ 발린초 사보(장)/ 리비아 아교바(니네타) 외/ 파올로 카리나니(지휘)/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랑스 그랑 오페라 풍으로 완성한 베르디의 걸작을 프랑스어버전으로 만나다

<시칠리아의 저녁기도>는 베르디가 파리 오페라극장의 위촉을 받아서 완성한 작품이다. 당시 파리의 관객들의 기호를 고려하여 프랑스 그랑 오페라 스타일로 완성한 작품이기에, 전후의 베르디의 다른 오페라들과는 차별되는 이 작품만의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다. 원래 프랑스어 리브레토를 기초로 완성된 작품이었지만,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이후 더 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2010년 9월 네덜란드 오페라의 최신 프로덕션을 담은 본 영상물은 쉽게 만나기 어려운 프랑스어버전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베르디 애호가들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연출가 크리스토프 로이는 13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오페라를 전체주의와 집단적 폭력이 기승을 부렸던 1940년대로 적절히 옮겨 놓았다. 3막에 등장하는 발레 '사계'는 드라마의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자주 생략되곤 하는데, 본 프로덕션에서는 몽포레와 앙리, 그리고 엘렌의 숨겨진 과거를 서술하는 마음 형태의 무용극으로 이 음악을 독특하게 해결하였다.



OpusArte OABD7092D



OpusArte OABD7091D

프로코피에프: 발레 '피터와 늑대'

영국 로얄 발레단 & 로얄 발레 스쿨 학생들/ 폴 머피(지휘)/ 로얄 발레 신포니에타

어린이를 위한 흥미진진한 발레로 다시 태어난 프로코피에프의 음악동화

프로코피에프가 1936년에 완성한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클래식 세계로 이끌어준 훌륭한 인도자 역할을 해왔던 작품이다. 영국 로얄 발레단은 친근한 작품을 어린이들을 위한 멋진 발레작품으로 성공적으로 변신시켰다. 로얄 발레단 출신의 무용수이자 현재 배우와 가수로도 활동 중인 멀리 탤런트 매튜 하트가 안무를 맡은 이 작품은 1995년에 처음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로얄 발레단의 훌륭한 선물로 크게 사랑받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11년 12월에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현재 로얄 발레단 최고의 슈퍼스타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발레리노 세르게이 폴루니이 카리스마 넘치는 늑대를 맡았고, 영화 '반 헬싱', '마인드헌터' 등으로 낯익은 배우 겸 댄서 빌 캠프가 할아버지 역할과 내레이션을 겸하였다. 새, 고양이, 오리, 피터를 비롯한 나머지 배역들은 미래의 발레 스타를 꿈꾸는 로얄 발레 스쿨의 학생들이 깜찍하게 연기하였다.



www.accentus.com



Accentus ACC10238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크리스티아네 월체(sop)/ 사라 코널리(ms)/ 리카르도 사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러 스페셜리스트가 만들어낸 장엄한 부활 교향곡

리카르도 사이는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재임 당시에 이미 걸출한 말러 교향곡 전집을 완성하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러 스페셜리스트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라이프치히로 옮겨온 뒤에도 말러에 대한 그의 열정은 변함이 없어서, 2011년 5월 작곡가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하면서 게반트하우스에서 인 터내셔널 말러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본 영상은 페스티벌 기간 중 있었던 교향곡 2번 '부활'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묵직한 흐름으로 이 교향곡의 장엄한 위엄을 유감없이 구축해나가는 사이의 강렬한 지휘와 탄탄한 앙상블로 거장의 지휘를 뒷받침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력이 빛을 발한다. 특히 마지막 악장의 피날레를 틀린 방송합창단의 열창은 이 위대한 교향곡의 승엄장식하는 MDR 합창단과 배한 감동을 유감없이 구현해내었다.

아트워크 : 현재 유럽 화단에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라이프치히 출신의 화가 네오 리우호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담은 아트워크도 이 영상물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준다.

말러: 교향곡 8번 '천인의 교향곡'

에리카 슨네고르드, 리카르도 메르베트, 크리스티아네 월체(sop)/ 리오바 브라운, 게르히트 롬베르거(alt)/ 스티븐 골드(te)/ 디트리히 헨셀(br)/ 게오르크 체펜펠트(bass)/ 리카르도 사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HD급 화질로 최초로 선보이는 말러의 교향곡 8번

말러의 교향곡 8번은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와 더불어 서양음악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마우루스가 쓴 9세기의 라틴어 찬가인 '성령이여 오소서' (Veni creator spiritus)를 토대로 한 1부와 괴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을 토대로 한 2부가 결합된 이 미증유의 대교향곡은 1910년 뮌헨에서의 초연당시 858명의 성악가와 171명의 연주자가 동원되면서 '천인의 교향곡'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게 되었다. 본 영상은 2011년 5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있었던 말러 페스티벌 중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이 교향곡의 장대한 스케일을 고해상도의 화면과 뛰어난 음향을 통해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리카르도 사이의 강렬한 카리스마는 게반트하우스 무대를 가득 메운 500여명의 뮤지션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간다. [표지 아트워크 : 말러 교향곡 2번과 같은 화가의 작품]



Accentus ACC10222



ARTHAUS
MUSIC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8 028

헨델: 알치나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아나 하르테로스(알치나)/ 베셀리나 카사로바(루치에로)/ 크리스티나 함마르스트룀(브라다만테)/ 베로니카 칸제미(모르가나) 외/ 마크 민코프스키/ 르 뒤지시앵 뒤 루브르

헨델의 대표 오페라 걸작을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

헨델을 비롯한 여러 바로크 오페라들은 화려한 무대와 아름다운 선율에도 불구하고 장황한 내용 때문에 쉽게 몰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바로크 오페라 영상물들이 한글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헨델의 걸작 오페라의 하나로 꼽히는 <알치나>의 2010년 빈 슈타츠오퍼 실황을 담은 본 영상은 Arthaus 본사에서 직접 삼입한 한글자막을 통해 그 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바로크 오페라의 화려한 진면목을 펼쳐 보인다. 여마법사 알치나에 반한 기사 루치에로, 남장을 하고 나타난 루치에로의 약혼녀 브라다만테,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함께 엮인 흥미로운 애증의 변주곡이 감각적인 무대미술과 화려한 의상과 함께 펼쳐진다. 연출가 애드리안 노블은 18세기 대본서 공작부인의 거실에서의 사실 공연을 재현하는 형태로 이를 연출함으로써 시대적 정경성과 바로크 오페라 고유의 정취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바로크 오페라의 대가 민코프스키의 지휘와 하르테로스와 카사로바를 위시한 일급 성악가들의 열창이 공연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Arthaus 108 029

쇼팽: 피아노협주곡 1, 2번 / 하이든: 교향곡 44번 '슬픔'

다니엘 바렌보임(pf)/ 안드리스 빌손스/ 베를린 슈타츠퉀펠레

관록의 피아니스트와 패기의 마에스트로가 함께 빚어낸 쇼팽의 피아노협주곡들

본 영상은 쇼팽의 탄생 200주년이었던 지난 2010년 뤼르 피아노 페스티벌 중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작곡가가 완성한 두 편의 피아노협주곡 모두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로 담은 것이다. 쇼팽의 피아노협주곡들은 그가 고국 폴란드를 떠나기에 앞서 완성된 청년기의 역작들이다. 고급의 다른 유명 협주곡들에 비해 관현악 파트의 부실함이 지적되는 편이지만, 피아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작곡가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들이기에 연주자들은 물론 피아노음악 애호가들에게도 크게 사랑을 받는 인기작들이다. 지휘와 피아노 양 분야 모두에 출중한 바렌보임이지만, 본 영상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젊은 마에스트로 안드리스 빌손스에게 지휘봉을 양보한 채 피아노 솔로에만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작곡가 특유의 섬세한 피아니즘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구현해내었다. 피아노협주곡들에 앞서 연주된 빌손스 지휘의 하이든의 교향곡 44번도 훌륭한 에피타이저로 손색이 없다.



Arthaus 108 030

마이어: 코린트의 메데아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나디아 미카엘(메데아)/ 라몬 바르가스(아손)/ 알래스테어 마일즈(크레온테)/ 엘레나 찰라고바 (크루에사) 외/ 이버 볼튼(지휘)/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는 메데아의 잔혹한 복수극

메데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악녀 캐릭터다. 메데아는 황금양모의 영웅 아손을 돕기 위해 남동생을 찢어 죽일 정도의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후일 메데아는 아손이 코린트의 공주 크레우사와 결혼하게 되자 그녀는 물론, 아손 사이에서 얻은 자신의 두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아손에게 복수한다. 메데아의 이야기는 후일 여러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금은 케루비니의 <메데아>가 유명하지만,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를 능가하는 큰 인기를 누렸던 메데아 관련 오페라가 있었다. 바로 독일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마이어의 오페라 <코린트의 메데아>가 그것이다. 1813년에 초연되었던 이 작품은 당시의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급속도로 망각되었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평가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었던 명연출가 한스 노이엔펠츠의 2010년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프로덕션이 한글자막을 갖춘 뛰어난 화질의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Arthaus 108 033

브루크너: 교향곡 7번

벨자-뫼스트 /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최고 고화질 영상에 담긴 브루크너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

2008년 9월 이들의 분개지인 클리블랜드의 세브란스 홀에서 펼쳐졌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브루크너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손꼽히는 이 7번은 작곡 도중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바그너의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뜨거운 추념의 마음을 담아내었던 장대한 아다지오 악장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들 중에서도 가장 유럽적인 사운드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브루크너의 작품이 요구하는 장중하면서도 부드러운 음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회장으로 손꼽히는 세브란스 홀의 우아한 인테리어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장엄한 브루크너의 교향악이 시각과 청각을 양쪽 모두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것이다.



Arthaus 108 031

푸치니: 토스카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펼쳐진 최고가수와 최고연출가의 압도적 무대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의 고대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여름 오페라 페스티벌은 2013년이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다. 그 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베로나 페스티벌은 진화를 거듭하여 공연 수준에 있어서도 톱클래스에 올라섰다. 베로나 페스티벌의 지휘자로는 이스라엘 출신인 다니엘 오렌이 간판스타다. 거대한 스케일과 명확한 완결성을 이끌어낸다. 연출가로는 아르헨티나 태생의 후고 데 아나의 명망이 높다. 2006년 페스티벌에서 이 두 거장이 힘을 합쳐 심금을 울리는 푸치니의 걸작 <토스카>를 멋지게 창조해냈다. 무대만 볼만한 것이 아니라 연주 수준에 있어서도 근래 주목할 만한 것이다. 당연히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이탈리아에서 현역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인정받고 있는 피오렌차 체를린스(코스카), 파바로티와 도밍고의 뒤를 잇는 대형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즈(카바라도시), 이탈리아 베이스 바리톤의 상징인 루제로 라이몬디(스카르피야)가 주요 배역을 맡아 1800년 6월의 어느 하루 동안 펼쳐지는 사랑과 질투, 음모와 살인의 드라마를 멋지게 그려냈다. 정치적 격동과 개인사가 엮인 비극이 서사적으로 묘사되었다.





Opus Arte DVD OA 1054D

터니지: 안나 니콜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로엑(안나)/ 수잔 빅클리(버지)/ 제레미 화이트(호간)/ 레베카 드 폰트 데이비스(케이)/ 제럴드 핀리(스텐) 외/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팜프 파탈의 생애를 담은 흥미만점의 현대 오페라

'안나 니콜'을 기억하는가? 1994년 무려 63살 연상의 석유재벌과 결혼함으로써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던 금발의 게스 청바지 모델이라면 보다 쉽게 기억이 날 것이다. 결혼가정 출신인 이 여인은 우여곡절 끝에 플레이보이 메이트로서 큰 성공을 거둔다. 이후 각종 모델로 잘 나가던 그녀는 죽음을 목전에 둔 늙은 갑부와의 속보이는 결혼을 통해 인생역전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유족들과의 지루한 소송 도중에 의문사를 당하면서 안나 니콜의 스토리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다. 영국의 대표 작곡가 마크-안소니 터니지는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한 편의 멋진 크로스오버 오페라로 완성하였다. 전설적인 재즈 드러머 피터 어스킨과 레드 제플린의 베이스리스트였던 존 폴 존슨 등이 창작과정에 영감을 주었는데, 이들은 2막의 파티장면에서 밴드 역할로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갖가지 기발한 무대장치들을 총동원한 리처드 존슨의 감각적인 연출과 더불어 소프라노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로엑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이 이 독특한 오페라를 한층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준다.

[보조자료]

○ 안나 니콜은 1967년 텍사스 휴스턴 인근의 한 결혼가정에서 태어났다. 18세 때 두 살 연하의 소년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그녀는 월마트의 점원과 클럽의 스트립댄서를 전전하면서 생활고에 허덕였는데,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이후에 플레이보이 메이트로 발탁되면서 그녀의 인생에도 햇볕이 들기 시작했다. 이후 게스 청바지 모델로 세인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그의 이름이 결정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은 그녀의 나이 27세 되던 해인 1994년에 90세의 석유재벌 하워드 마샬과 결혼하면서였다. 그녀의 소원(?)대로 마샬은 이듬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그녀에게 쉽게 상속되지 못했다. 유산의 상속을 두고 마샬의 유족들과 지루한 소송을 벌이던 와중에 2006년에는 그녀의 아들이 약물중독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에는 그녀 자신도 호텔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막을 내렸다.

○ 작곡가 마크-안소니 터니지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통해 영국 음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곡가다. 체계적인 클래식 음악교육을 받았고 동시에 듀크 엘링턴, 마일즈 데이비스를 위시한 여러 재즈 뮤지션들에게도 물입했었는데, 이러한 재즈의 영향은 그의 창작 스타일의 큰 개성으로 자리 잡았다. 터니지는 버밍엄 심포니와 시카고 심포니의 상주작곡가를 거쳐서 2005년부터는 런던 왕립음악원의 작곡과 교수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Opus Arte DVD OA 1055D

야나체: 예누파

아만다 루크로프트(예누파)/ 데보라 폴라스키(코스텔니츠카)/ 미로슬라프 드보르스키(라카)/ 니콜라이 슈코프(슈테바) 외/ 이버 볼튼(지휘)/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

정상급 성악가들이 열연으로 빛어낸 야나체 최고의 오페라 걸작

야나체는 19/20세기 전환기를 대표하는 체코의 오페라 작곡가다. 첫 성공작 '예누파' 외에도 '카차 카바노바', '교활한 새끼여우', '미크로폴로스 사건', '죽은 자의 집에서' 등이 유명하다. 예누파와 두 사촌 슈테바와 라카(둘은 이복형제다) 사이의 엇갈린 사랑과 양어머니 코스텔니츠카로 대변되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함께 만들어낸 비극을 다룬 이 오페라에는 1막에 등장하는 흥겨운 모라비아 민요와 춤, 예누파와 라카의 이중창, 2막에서 코스텔니츠카가 노래하는 무시무시한 모놀로그 'Co Chivila...', 3막의 혼례의 합창과 마지막 이중창 등등의 매력적인 부분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본 영상에 수록된 '예누파'는 2009년 12월 마드리드의 레알 오페라극장에서 있었던 슈테판 브라운슈바흐의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아만다 루크로프트, 데보라 폴라스키, 미로슬라프 드보르스키 등이 정상급 가수들의 뛰어난 가창과 연기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심리변화와 이 작품에 담긴 모라비아의 향토적인 색채가 효과적으로 부각되었다.

[보조자료]

○ 오페라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브리아 가문의 구성원들은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를 복잡한 편인데(내지의 가계도를 참고하시라), 라카는 사촌누이인 예누파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복동생인 슈테바를 사랑하여 그의 아이를 임신한다. 계모 코스텔니츠카는 예누파와 슈테바를 결혼시키려 하나, 새롭게 총장의 딸을 넘보던 슈테바는 결혼을 거부한다. 대신 라카와 짝을 맺어주려 하나, 라카는 슈테바의 아기를 자신이 거두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 결국 코스텔니츠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누파의 아기를 죽이고 만다. 예누파와 라카가 혼인식을 하기 직전 아기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 하지만 예누파와 라카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희망 속에서 오페라가 마무리된다.

○ 본 프로덕션에는 관록과 실력을 겸비한 정상급 오페라 스타들이 함께 모여 공연의 완성도를 드 높였다. 가창과 연기 모두에서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영국 소프라노 아만다 루크로프트가 타이틀롤을 노래하였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바그너 히로인 데보라 폴라스키가 코스텔니츠카의 복잡한 심리변화를 훌륭히 표현하였다. 한 시대 이전 최고의 라카로 각광받았던 페터 드보르스키의 친동생인 미로슬라프가 동일 배역에서 형의 명성을 훌륭히 계승하였다.



Opus Arte DVD OA 1060D
[2DVDs]

베르디: 시칠리아의 저녁기도 (프랑스어버전)

바르바라 하베르만(엘렌)/ 부카르트 프리츠(앙리)/ 알레안드로 마르코-부르메스터(귀)/ 발린츠 사보(장)/ 리비아 아고바(니네타) 외/ 파올로 카리나니(지휘)/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랑스 그랑 오페라 풍으로 완성한 베르디의 걸작을 프랑스어버전으로 만나다

〈시칠리아의 저녁기도〉는 베르디가 파리 오페라극장의 위촉을 받아서 완성한 작품이다. 당시 파리의 관객들의 기호를 고려하여 프랑스 그랑 오페라 스타일로 완성한 작품이기에, 전후의 베르디의 다른 오페라들과는 차별되는 이 작품만의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다. 원래 프랑스어 리브레토를 기초로 완성된 작품이었지만,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이후 더 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2010년 9월 네덜란드 오페라의 최신 프로덕션을 담은 본 영상물은 쉽게 만나기 어려운 프랑스어 버전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베르디 애호가들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연출가 크리스토프 로이는 13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오페라를 전체주의와 집단적 폭력이 기승을 부렸던 1940년대로 적절히 옮겨 놓았다. 3막에 등장하는 발레 '사계'는 드라마의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자주 생략되곤 하는데, 본 프로덕션에서는 몽포르테와 앙리, 그리고 엘렌의 숨겨진 과거를 서술하는 마임 형태의 무용극으로 이 음악을 독특하게 해결하였다.

[보조자료]

○ 〈시칠리아의 저녁기도〉의 대본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문학적 창작을 덧붙여서 완성되었다. 1282년 시칠리아에서는 당시 이 섬을 지배하던 프랑스의 폭정에 항거하는 큰 폭동이 일어났다. 저녁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에 맞춰서 섬 주민들이 프랑스인들을 습격하는 것으로 이 폭동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폭동은 섬전체로 확대되면서 결국 프랑스 지배세력이 섬 밖으로 축출되고, 폭동을 후원했던 아라곤의 페드로 3세가 시칠리아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베르디의 오페라는 이 역사적 사건에 가공의 인물인 엘레나 공녀(전 시칠리아 왕의 누이동생)와 아리고(시칠리아의 젊은이, 사실은 프랑스 총독 몽포르테의 숨겨진 아들)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를 삽입하여 완성되었다.

○ 〈시칠리아의 저녁기도〉는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의 연이은 대성공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베르디가 파리 오페라하우스의 위촉을 받아서 완성한 작품이다. 베르디는 파리의 관객들을 감안하여 프랑스 고유의 그랑 오페라 스타일의 작품을 완성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5막의 장황한 스토리에 발레장면까지 포함된 〈시칠리아의 저녁기도〉다. 프랑스어 리브레토에 기초했던 오리지널 버전도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현재 이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개정 버전이 보다 널리 공연되고 있는 편이다. 본 영상은 프랑스어버전을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Opus Arte DVD OA 1050D
[2DVDs]

차이콥스키: 스페이드의 여왕

〈예브게니 오네긴〉을 능가하는 차이콥스키 최고의 걸작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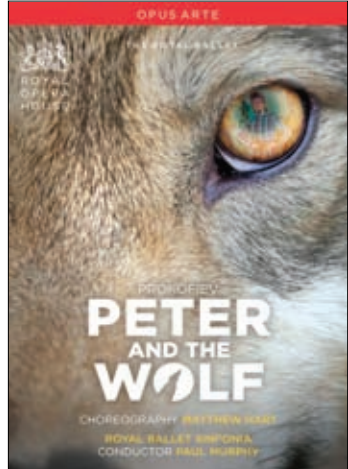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중에서 대중적 인기는 〈예브게니 오네긴〉이 가장 높지만 〈스페이드의 여왕〉은 러시아 사회가 안고 있었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깔고 있어서 보다 목직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할 수 있다. 오페라는 신분상승의 욕구로 도박에 빠져버린 게르만인 순결한 연인 리자를 비극에 몰아넣고 자기 자신도 파멸시켜버리는 지독하게 어두운 이야기다. 타이틀 롤을 맡은 테너는 7개의 모든 장면에 출연하여 노래하는데, 이는 굉장한 지구력과 가창력을 요구한다. 2010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대극장 실황인 이 영상물에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테너 미샤 디디크는 리리코와 드 라미티코를 넘나드는 놀라운 솜씨로 일대호평을 받았다. 또는 연출자 길베르트 데플로와 그의 오랜 동료인 무대장치가 윌리엄 오를란디는 사실적인 무대와 의상, 상징적인 장치를 절묘하게 교차시켜 이 오페라의 가치를 남김없이 부각시켰다.

[보조자료]

○ 〈스페이드의 여왕〉은 1890년 차이콥스키가 50세 때 작곡되었다.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이므로 후기작품에 해당하며 오페라로는 끝에서 두 번째다. 친동생 모데스트가 대본을 썼는데 원래 다른 작곡가에게 맡길 예정이었다가 차이콥스키에게 넘어왔다. 차이콥스키는 주인공인 게르만과 리자, 그리고 수수께끼의 여인인 늙은 백작부인의 캐릭터에 매료되었고 이를 더 명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직접 대본을 수정하기도 했다.

○ 문학적 감수성이 예민했던 차이콥스키는 특히 러시아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슈킨을 좋아했다. 그의 3대 걸작 오페라라는 〈예브게니 오네긴〉, 〈마체파〉, 〈스페이드의 여왕〉이 모두 푸슈킨의 원작을 사용했을 정도로! 〈스페이드의 여왕〉의 경우 푸슈킨의 원작은 오페라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수정되었다. 푸슈킨은 게르만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지만, 차이콥스키는 강물에 투신한 리자의 자살에 이어 도박에서 패한 게르만도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바꿈으로서 한층 처절한 비극으로 만들었다.

○ 늙은 백작부인이 주도하는 미스터리 분위기도 이 오페라의 특징이다. 절세미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따라 프랑스에 머물 때 카드에 빠져 지내다가 필승 카드의 비밀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자신의 죽음을 가져올 것이란 예언을 접하고는 기승 속에 비밀을 봉인한 채 외부와 벽을 쌓고 지낸다. 결국 게르만 때문에 죽음을 맞은 다음에는 으스스한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 살인자에게 파멸의 단서를 선사하게 된다. 오페라 제목 〈스페이드의 여왕〉은 기본적으로 카드놀이에 있어서 스페이드 퀸을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백작부인까지 상징하는 중의적인 의미라고 하겠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이중적 상징이 확고하게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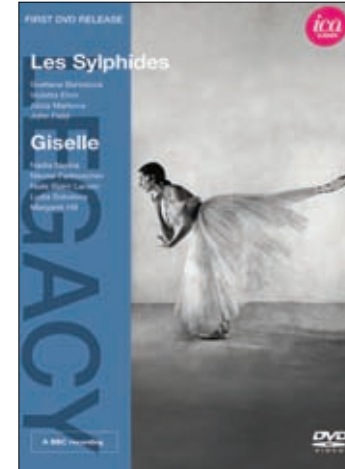
Opus Arte DVD OA 1057D

프로코피에프: 발레 '피터와 늑대'

영국 로얄 발레단 & 로얄 발레 스쿨 학생들/ 폴 머피(지휘)/ 로얄 발레 신포니에타

어린이를 위한 흥미진진한 발레로 다시 태어난 프로코피에프의 음악동화

프로코피에프가 1936년에 완성한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클래식 의 세계로 이끌어준 훌륭한 인도자 역할을 해왔던 작품이다. 영국 로얄 발레단은 친근한 작품을 어린이들을 위한 멋진 발레작품으로 성공적으로 변신시켰다. 로얄 발레단 출신의 무용수이자 현재 배우와 가수로도 활동 중인 멀티 탠런트 매튜 하트가 안무를 맡은 이 작품은 1995년에 처음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로얄 발레단의 훌륭한 선물로 크게 사랑받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11년 12월에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현재 로얄 발레단 최고의 슈퍼스타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발레리노 세르게이 풀루닌이 카리스마 넘치는 늑대를 맡았고, 영화 '반 헬싱', '마인드헌터' 등으로 낮은 배우 겸 댄서 빌 캠프가 할아버지 역할과 내레이션을 겸하였다. 새, 고양이, 오리, 피터를 비롯한 나머지 배역들은 미래의 발레 스타를 꿈꾸는 로얄 발레 스쿨의 학생들이 깜찍하게 연기하였다.



ICAD 5030

〈레 실피드〉 〈지젤〉

베리오소바, 마르코바... 전설적 발레리나들이 남긴 소중한 기록

1950년대의 방송용 영상기록을 풍부하게 보유한 BBC의 발레 아카이브에서 마고트 폰테인의 일부 자료는 공개된 바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당대의 전설적 발레리나들의 전막영상을 발매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일 것이다. 20세기초에 활약한 미하일 포킨이 1830년대 프랑스 낭만발레를 오마주한 〈레 실피드〉는 1953년의 자료가 실렸다. 폰테인에 앞서 활약한 영국 최초의 세계적 발레리나 알리샤 마르코바, 볼쇼이 발레학교 출신으로 영국에서 건너온 미녀 스타 비올레타 엘빈, 발레 뤼스의 유신을 풍부하게 계승한 스베틀라나 베리오소바가 세 명의 솔로리스트로 나섰다. 1958년 자료인 〈지젤〉에는 마고트 폰테인의 경쟁자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나디아 네리나를 볼 수 있다. 네리나의 요청에 따라 볼쇼이 스타 니콜라이 파데예체프가 상대역으로 초청되었는데, 이 인연 때문인지 그녀는 볼쇼이와 키로프 발레의 무대에 서유럽 발레리나 최초로 초대되기도 했다.

ica ICA (International Classical Artists) DVD

www.icartists.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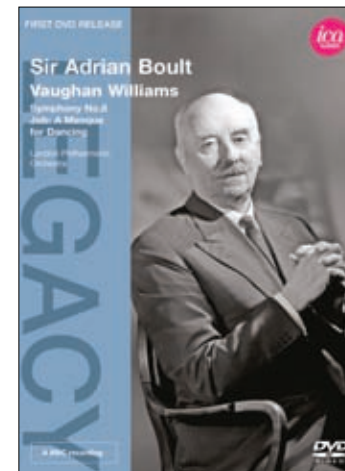
ICAD 5012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JS 바흐: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 이골 오이스트라흐(vn)/ 키릴 콘드라신 외/ 모스크바 필하모닉 외

오이스트라흐 부자가 연주하는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의 한 사람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가 전성기 시절에 남긴 귀한 공연실황 영상이 ICA를 통해 DVD로 출시되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협주곡은 1963년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영국 투어 중에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오이스트라흐의 열연과 더불어 구소련의 대표거장 키릴 콘드라신의 열정적인 모습까지 함께 만날 수 있다. 아들 이고르와의 다정한 협연을 담은 기록들도 함께 수록되었다. 역시 1963년의 기록인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V.364에서는 바이올린 파트를 아들에게 양보한 채 비올라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보다 2년 앞서의 영상인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에서도 역시 혈연의 깊은 교감을 나누는 두 부자의 다정다감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흑백영상에 모노 오디오채널의 옛 영상이지만, 오이스트라흐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놓칠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ICAD 5037

본월리엄스: 교향곡 8번, 가면무용극을 위한 음악 '옴'

애드리언 볼트(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국 지휘자계보의 대부 애드리언 볼트를 컬러 화면으로 만나다

애드리언 볼트는 20세기 영국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지휘자다. 그는 왕립음악원의 교수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으며, BBC 심포니의 설립을 주도했고, 또한 런던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도 장시간 활동하면서 많은 영국의 근현대작곡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대중들에게 소개하면서 영국 음악계의 큰 어른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1973년 건강을 이유로 콘서트 무대에서 은퇴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간간히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활동을 펼치며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1983년에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본 DVD는 그가 콘서트 활동을 펼쳤던 시기의 가장 마지막 무렵인 1972년 10월의 영상으로 이 위대한 정경한 노익장을 기대 이상의 생생한 컬러화면으로 만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한다. 그가 일생에 걸쳐서 열정을 보였던 작곡가인 본월리엄스의 작품을 연주하였는데, 교향곡 8번과 구약의 텍스트에 기반을 둔 가면무용극인 '옴'을 위한 음악을 함께 연주하였다.



ICAD 5038

라흐마니노프: 중, 프로코피예프: 키제 중위,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앙드레 프레빈(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앙드레 프레빈의 최전성기 활약상을 담은 걸러 영상들

앙드레 프레빈은 대중음악과 클래식 모두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팔방미인이다. 재즈피아니스트로 음악계에 입문하였으며, 4번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영화음악가였다. 지휘자로 변신한 이후에는 11년간 런던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를 맡으면서 악단의 대중적인 기반을 확고히 만드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본 DVD에 수록된 영상들은 지휘자로서 그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70년대의 기록들로 모두 런던 심포니를 지휘한 걸러영상들이다. 그는 1973년 프롬스 무대에 라흐마니노프의 대작인 '중'을 영어가사로 번역하여 올렸는데, 세일러 암스트롱, 로버트 티어, 존 셸리-퀵크와 같은 당재의 명가수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하여 연주의 격을 한층 높였다. 프로코피예프의 '키제중위' 모음곡은 다양한 편곡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트로이카'가 포함된 작품으로 1977년 크로이던 페어 필드홀에서 연주한 기록이다. 1971년 로얄 페스티벌홀에서 연주한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도 함께 수록되었다.

말러: 교향곡 5번

클라우스 텐슈테트(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남긴 대표적인 명연을 화면과 함께 만나다

클라우스 텐슈테트는 사망 이후 더욱 주가가 높아진 지휘자다. 스튜디오에서보다 콘서트 현장에서 더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거장의 특징이 최근 줄을 이어 출시되고 있는 그의 여러 실황을 반들을 통해 다시금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휘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텐슈테트의 모습을 담은 본 DVD는 다시금 그의 팬들을 흥분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내용물은 다름 아닌 말러 교향곡 5번의 1988년 실황. EMI에서 발매되었던 CD와 동일한 공연실황으로 텐슈테트의 대표명연 중 하나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바로 그 연주다. 이 말러 교향곡 5번은 그가 런던 필하모닉에 컴백한 이후에 남긴 여러 콘서트 실황들 중 거의 마지막에 속하는 것으로, 텐슈테트 특유의 풍부한 감성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호연이다. 오디오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연주지만, 지휘대 위에서 혼신의 열정을 발하는 그의 모습은 이 연주의 감동을 한층 더 배가시켜줄 것이다.

주목할만한 DVD

ICAD 5041



Arthaus DVD

www.arthaus-musik.com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헨델: 알치나

아나 하르테로스(알치나)/ 베셀리나 카사로바(루지에도)/ 크리스티나 함마르스트렘(브라다만테)/ 베로니카 칸제미(모르가나) 외/ 마크 민코프스키/ 르 뮌지시앵 뒤 루브르



Arthaus DVD 101 571 [2DV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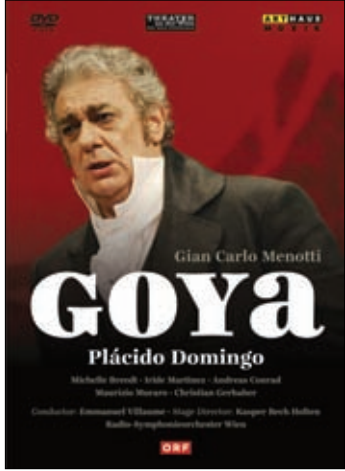
헨델의 대표 오페라 걸작을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다

헨델을 비롯한 여러 바로크 오페라들은 화려한 무대와 아름다운 선율에도 불구하고 장황한 내용 때문에 쉽게 몰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바로크 오페라 영상물들이 한글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헨델의 걸작 오페라의 하나로 꼽히는 〈알치나〉의 2010년 빈 슈타츠오퍼 실황을 담은 본 영상은 Arthaus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을 통해 그 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바로크 오페라의 화려한 진면목을 펼쳐 보인다. 여법사 알치나에 반한 기사 루지에도, 남장을 하고 나타난 루지에도의 약혼녀 브라다만테,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함께 엮인 흥미로운 애증의 변주곡이 감각적인 무대미술과 화려한 의상과 함께 펼쳐진다. 연출가 에드리안 노블은 18세기 데본셔 공작부인의 거실에서의 사설 공연을 재현하는 형태로 이를 연출함으로써 시대적 정격성과 바로크 오페라 고유의 정취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바로크 오페라의 대가 민코프스키의 지휘와 하르테로스과 카사로바를 위시한 일급 성악가들의 열창이 공연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보조자료]

○ 헨델의 3막 오페라 〈알치나〉는 샤를마뉴와 이슬람 사이의 전쟁을 다룬 루도비코 아리오스토의 대서사시 '광란의 오를란도'에 의거한 안토니오 마르키의 리브레토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초연은 1735년 4월 16일 코벤틡가든에서 이뤄졌다. 헨델은 173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서 오페라 장르에서 최고의 창작력을 발휘하였는데, 이 무렵 완성된 작품들인 〈오를란도〉, 〈아리오단테〉, 〈알치나〉, 〈세르세〉 등은 작곡가의 대표 오페라 걸작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화려한 발레가 삽입되어 있는데, 특히 미뉴에트는 '알치나의 미뉴에트'라는 제목으로 헨델의 애청 선율로 크게 사랑받고 있다.

○ 대부분의 바로크 오페라들이 그러하듯, 이 작품 역시도 여러 등장인물들 사이의 여러 애증의 연결고리들이 복잡하게 뒤얽히다가 종국에 이르러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플롯을 따르고 있다. 기사 루지에도는 여법사 알치나가 지배하는 섬에서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루지에도의 정혼자인 브라다만테는 남장을 한 채 후견인 멜리소와 함께 루지에도를 구하기 위해 알치나의 섬에 도착한다. 알치나의 여동생인 모르가나는 남장을 한 브라다만테를 사모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모르가나를 사랑하던 오펜데는 분노에 사로잡힌다. 이들 다섯 인물들의 엇갈린 사랑의 끈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와중에 알치나에 의해 아버지가 짐승으로 변해버린 소년 오베르토의 슬픔과 복수도 오페라의 내용 중에 한 몫을 한다. 우여곡절 끝에 알치나의 마법은 깨지고, 루지에도와 브라다만테는 행복하게 다시 결합한다.



Arthaus DVD 101 576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메노티: 고야

플라시도 도밍고(고야)/ 미첼 브레트(카에타나)/ 이리데 마르티네스(마리아)/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마르틴) 외/ 엠마누엘 비욘/ 빈 방송교향악단

이 시대의 위대한 테너 도밍고,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를 열연하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미국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잔 카를로 메노티는 20세기 오페라사에 일획을 그었던 작곡가다. 또한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문화축전을 위해 한국정부에서 위촉했던 작품인 〈시집가는 날〉의 작곡가로도 우리 음악계와 깊은 인연을 맺었었다. 〈고야〉는 1986년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에서 세계 초연되었던 메노티의 만년 걸작으로, 근대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인 프란시스코 고야의 이야기를 담은 작곡가 자신의 리브레토를 토대로 완성한 3막의 오페라다. 본 영상은 2004년 빈 클랑보겐 페스티벌 기간 중 테아터 안 더 빈에서 펼쳐졌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이 작품을 위촉한 장본인인 불세출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타이틀 롤을 열연하였고, 남아공 출신의 미모의 메조소프라노 미첼 브레트가 여주인공인 카에타나 공작부인을 노래하였다. 고야의 걸작인 '마야 부인 연작'의 탄생과 관련된 에피소드와 더불어 당시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던 스페인인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이 오페라의 흥미진진한 내용을 친절한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보조자료]

○ 잔 카를로 메노티는 1911년 이탈리아 카멜리아노에서 태어났다. 토스카니니의 권유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커티스음악원에서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았다. 데뷔작인 〈아멜리아 무도회에 가다〉의 성공 이후, 〈도둑과 노처녀〉, 〈영매〉, 〈전화〉, 〈영사〉 등이 연이어 호평을 받았고, 특히 1951년 선보였던 TV를 위한 최초의 오페라인 〈아말과 밤의 방문자들〉은 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던 화제작이었다. 또한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문화축전을 위해 한국정부에서 위촉했던 작품인 〈시집가는 날〉의 작곡가로도 우리 음악계와 깊은 인연을 맺었었다. 본 영상에서도 공연 직후 관중석에 있는 그의 최만년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로부터 3년 뒤인 2007년 1월에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 근대 스페인 회화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인 프란시스코 고야와 그의 대표걸작인 마야부인 연작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알바 여공작 마리아 카에타나 사이의 로맨스가 이 오페라의 주요내용을 이룬다. 스페인을 떠돌던 무명화가 고야는 우연한 기회에 신분을 속인 카에타나를 만나 첫 눈에 반한다. 그녀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고야의 사랑은 그칠 줄 모른다. 두 사람 사이의 열정은 위대한 걸작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둘은 은밀한 연인관계를 유지한다. 당시 스페인 국왕은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일족인 샤를 4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카에타나는 왕비 마리아 루이사와 견원지간이었다. 그로인해 고야 역시 정치적인 충돌에 휘말린다. 이후 둘 사이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고야는 신체적으로도 큰 불행을 떠안게 된다.



Arthaus DVD 101 578 [2DVDs]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마이아: 코린트의 메데아

나디아 미카엘(메데아)/ 라몬 바르가스(아손)/ 알래스테어 마일즈(크레온테)/ 엘레나 찰라고바 (크루에사) 외/ 이버 볼튼(지휘)/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는 메데아의 잔혹한 복수극

메데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악녀 캐릭터다. 메데아는 황금양모의 영웅 아손을 돕기 위해 남동생을 찢어 죽일 정도의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후일 메데아는 아손이 코린트의 공주 크레우사와 결혼하게 되자 그녀는 물론, 아손 사이에서 얻은 자신의 두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아손에게 복수한다. 메데아의 이야기는 후일 여러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금은 케루비니의 〈메데아〉가 유명하지만,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를 능가하는 큰 인기를 누렸던 메데아 관련 오페라가 있었다. 바로 독일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마이어의 오페라 〈코린트의 메데아〉가 그것이다. 1813년에 초연되었던 이 작품은 당시의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급속도로 망각되었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평가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었던 명연출가 한스 노이엔펠츠의 2010년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프로덕션이 한글자막을 갖춘 뛰어난 화질의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보조자료]

○ 조반니 시모네 마이어는 1763년 바이에른의 소도시 멘도르프에서 태어났다.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베르가모와 베네치아에서 음악을 배웠으며, 이후 베르가모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18/19세기 전환기 이탈리아 오페라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였고, 도니제티와 같은 거물급 제자를 배출하였다. 그는 모차르트와 로시니 사이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오페라 작곡가로 군림하면서 당대에 큰 인기를 누렸지만, 이후 이탈리아의 정치적 환경이 변하면서 이방인이었던 그에 대한 평가 박해졌고, 그와 그의 작품들 역시 점차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 이 오페라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보다 널리 알려진 케루비니의 〈메데아〉와 거의 유사하다. 코린트의 크레온테 왕은 황금양모의 영웅인 아손에게 자신의 딸 크레우사와 왕국을 맡기길 원한다. 하지만 이미 아손과의 사이에서 두 자식을 낳은 메데아가 눈에 가시다. 때맞춰 메데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아손은 크레우사와의 결혼을 결정한다. 메데아는 크레우사의 약혼자였던 아테네의 왕 에게오와 힘을 합쳐 아손과 크레온테에 대항한다. 메데아는 독이 묻은 옷으로 크레우사를 살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두 자식까지 죽임으로써 아손에게 복수한다.



Arthaus DVD 101 574
[2DVDs]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모차르트: 돈 조반니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돈조반니)/ 발터 베리(레포렐로)/ 엘리자베트 그뤼머(돈나 안나)/ 필라 로렌가(돈나 엘비라)/ 에리카 코트(체를리나) 외/ 페렌츠 프리차이(지휘)/ 베를린 도이치오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프리차이, 피셔-디스카우, 발터 베리의 전성기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다

베를린은 냉전 시절 동서로 양분되는 불행을 겪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한층 더 풍요로운 문화적인 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도시의 자랑이었던 베를린 국립극장과 베를린 필이 각각 동서로 갈라지면서 양쪽은 상대방에 필적하는 신생단체들을 각기 설립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동베를린의 베를린 심포니(현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서베를린의 베를린 도이치오퍼였다. 본 DVD는 바로 1961년에 있었던 베를린 도이치오퍼의 역사적인 개관 공연을 담고 있다. 당시 카라얀에 버금가는 명망과 인기를 누렸던 페렌츠 프리차이가 지휘봉을 잡았던 이 공연에는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의 타이틀 롤을 비롯하여, 발터 베리, 필라 로렌가, 엘리자베트 그뤼머, 요제프 그라인들과 같은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정상급 가수들이 총출연하면서 이 극장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였다. 흑백화면과 모노 오디오채널, 그리고 당대의 관습대로 독일어로 노래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전설적인 마에스트로와 정상급 대가수들의 전성기 모습을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보조자료]

○ 지휘자 페렌츠 프리차이는 191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다. 버르톡, 코다이, 도흐나니와 같은 이 나라의 거물 작곡가들을 사사한 이후, 1939년 부다페스트 국립극장을 통해 지휘자로 입문하였다. 1947년 클렘페러의 대타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출연하면서 유럽 음악계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듬해 RIAS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를 맡으면서 베를린에 진출하였다. 이 도시를 기반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였지만, 50년대 후반부터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1963년 2월 20일에 향년 49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 베를린 도이치오퍼는 종전 후 동베를린에 속하게 된 명문 오페라극장인 베를린 슈타츠오퍼에 대항하기 위해 1961년 서베를린 측에서 설립한 오페라극장이다. 냉전 시대 양 진영의 힘겨루기에 힘입어 이 극장은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의 큰 후원을 받으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로린 마젤, 헤수스 로페스-코보스, 주제페 시노폴리, 라파엘 프뤼벡-브루고스, 크리스티안 틸레만 등의 거장들이 이 오페라극장의 역대 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도날드 러니클스가 음악감독으로 재임 중이다.

○ 전설적인 호색한의 얘기를 다룬 <돈 조반니>는 빈에서 작곡되어 체코의 프라하에서 모차르트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으며 희극적인 요소와 무겁고 교훈적인 내용이 혼재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그래서 오페라 부파나 오페라 세리아가 아닌 드라마 지아코소(Drama Giacoso)로 불리기도 한다.



Arthaus DVD 107 335
[2DVDs]

라모: 플라테

폴 애그뉴(플라테)/ 미레이유 델루슈(라 폴리)/ 안 뉘롱(데스피스)/ 뱅생 르 텍시에르(주피테르) 외/ 마크 민코프스키(지휘)/ 르 워지시앵 뒤 루브르

뭇생긴 개구리 요정과 주피테르의 스캔들을 다룬 유쾌 발랄한 라모의 오페라

프롤로그의 3개의 막으로 구성된 라모의 리릭 코미디 '플라테'는 1745년 루이 15세의 아들이자 루이 16세의 아버지인 루이 도팽과 스페인의 왕녀 마리아 테레사의 결혼 축하연을 위해 완성된 작품이다. 주피테르(주피터)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뭇생긴 늪의 개구리 님프 플라테가 신들과 벌이는 한바탕 소동을 유쾌한 노래와 춤으로 재치 있게 엮은 이 작품은 라모를 통해 절정에 올랐던 바로크시대의 프랑스 무대극의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본 영상은 '플라테'의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바로크오페라 스페셜리스트 마크 민코프스키가 지휘봉을 잡았던 2002년 파리 오페라하우스(가르니에 팔레)에서의 공연실황을 담은 것이다. 이 시대의 정상급 가수들인 폴 애그뉴, 미레이유 델루슈, 안 뉘롱, 로랑 나우리 등이 유쾌한 코믹연기를 능청스럽게 펼쳐 보이며, 기발한 발상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세계를 시대를 초월한 환상적인 배경으로 옮겨 놓은 로랑 펠리의 감각적인 연출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보조자료]

○ <플라테>는 자크 오투르의 서사시인 '플라테, 혹은 주노의 질투'를 기초로 아드리앵 조셉 르 발루아 도르비유가 만든 프랑스어 대본을 기초로 완성되었다. 1745년 3월 31일 루이 15세의 아들이자 루이 16세의 아버지인 루이 도팽과 스페인의 공주 마리아 테레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베르사유에서 초연되었다. 마리아 테레사는 추녀로 유명했기 때문에 뭇생긴 개구리 요정이 주인공을 맡은 이 오페라가 자칫 큰 파문을 만들 뻔 했지만, 초연을 관람했던 관객들은 이 유쾌한 오페라를 모두 즐겁게 감상했다고 한다.

○ 오페라는 신들 사이의 논쟁을 담은 프롤로그와 이후 플라테와 주피테르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세 개의 막으로 구성되었다. 프롤로그에서는 탈리(희극의 여신), 모위스(조롱의 신), 아무르(사랑의 신) 등이 모여 호시탐탐 바람피울 틈을 엿보는 신들과 인간들을 풍자하면서 바람기 많은 주피테르(주피터)와 질투심 많은 쥐농(주노)를 골려줄 장난이 준비한다. 개구리를 닮은 뭇생긴 늪의 님프 플라테는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단단히 착각 중이다. 프롤로그의 공모자들은 이 플라테를 자신들의 장난에 이용하기로 결정한다. 메르퀴르(머큐리)가 플라테에게 내려와 주피테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실제로 주피테르가 늪으로 내려와 플라테 앞에서 변신 쇼를 펼치며 플라테의 혼을 빼놓는다. 플라테와 주피테르의 성대한 결혼식이 펼쳐지고, 질투에 눈이 먼 쥐농이 이들 커플을 급습하지만, 신부의 정체가 뭇생긴 개구리 님프라는 것을 알게 된 쥐농은 이 소동이 장난임을 알아차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사람들의 조롱 속에 흥당무가 된 플라테가 급히 늪 속으로 모습을 숨기면서 오페라가 마무리된다.



Arthaus DVD 107 239

벨리니: 몽유병의 여인

낭만주의의 몽환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걸작 오페라, 그 40년만의 영상물

19세기 전반기의 낭만오페라에서는 유독 정신병이나 몽유병에 걸린 여주인공이 많이 등장한다. 베르디의 <맥베트>에서는 몽유병이 자살이라는 파국에 이르지만, 벨리니의 <몽유병의 여인>에서는 주인공 아미나가 연인에게 의심 받는 단서와 오해를 푸는 실마리를 모두 몽유병이 제공함으로써 해피 엔딩이 된다. 2004년 1월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피렌체) 실황. 가장 청아한 음성의 벨 칸토 소프라노로 꼽히는 에바 메이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미성의 테너 호세 브로스가 주역을 맡았다. 또한 울가를 예술의 전당에서 <나부코>를 지휘하는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거장 다니엘 오렌이 지휘대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탈리아 극장계이지만 페데리코 티에치의 연출은 심리학 분석을 가미한 최신스타일이다. 시대배경을 19세기말로 바꾼 가운데 모든 사건은 아미나의 꿈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해석 했다. 오페라의 하이라이트인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몽유 상태의 아미나'는 알프스의 눈 덮인 산에 놓인 철골 다리를 걷는 것으로 설정하여 긴장감을 더한다.

[구, TDK DVWW-OPSON과 동일영상물]

쇼팽: 피아노협주곡 1, 2번

하이든: 교향곡 44번 '슬픔'

다니엘 바렌보임(pf)/ 안드리스 넬슨스/ 베를린 슈타츠헤펠레



Arthaus DVD 101 577

관록의 피아니스트와 패기의 마에스트로가 함께 빛어낸 쇼팽의 피아노협주곡들

본 영상은 쇼팽의 탄생 200주년이었던 지난 2010년 뤼르 피아노 페스티벌 중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작곡가가 완성한 두 편의 피아노협주곡 모두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로 담은 것이다. 쇼팽의 피아노협주곡들은 그가 고국 폴란드를 떠나기에 앞서 완성된 청년기의 역작들이다. 고급의 다른 유명 협주곡들에 비해 관현악 파트의 부실함이 지적되는 편이지만, 피아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작곡가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들이기에 연주자들은 물론 피아노음악 애호가들에게도 크게 사랑을 받는 인기작들이다. 지휘와 피아노 양 분야 모두에 출중한 바렌보임이지만, 본 영상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젊은 마에스트로 안드리스 넬슨스에게 지휘봉을 양보한 채 피아노 솔로에만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작곡가 특유의 섬세한 피아니즘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구현해내었다. 피아노협주곡들에 앞서 연주된 넬슨스 지휘의 하이든의 교향곡 44번도 훌륭한 에피타이저로 손색이 없다.



C Major Entertainment DVD

www.cmajor-entertainment.com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C Major DVD 707308 [2DVDs]

비제: 카르멘

베아트리스 위리아-몽종(카르멘)/ 로베르토 알라나(돈 호세)/ 어윈 슈로트(에스카미요)/ 마리아 포 플라프스카(미카엘라) 외/ 마르크 피올레(지휘)/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이 시대를 대표하는 카르멘과 돈 호세를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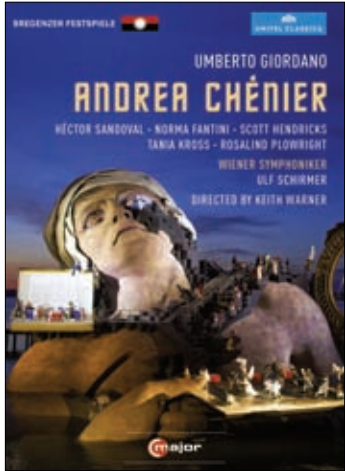
'오페라계의 도살자'로 악명 높은 화제의 연출가 칼릭스토 비에이토의 <카르멘>이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2010년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을 위해 연출한 최신 프로덕션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카르멘과 돈 호세인 베아트리스 위리아-몽종과 로베르토 알라나, 그리고 네트렙코의 남자라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서 오페라계의 새로운 히어로로 급주가를 올리고 있는 바리톤 어윈 슈로트가 한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한다. 비에이토의 이전 연출작들에 비해 선정성과 폭력의 강도가 다소 줄어든 편이지만, 현대적이고도 암울한 배경 위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여정은 21세기 우리 주변에서도 이 악녀의 이야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될 수 있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보다 통상적으로 공연되는 레치타티보를 적용한 개정버전에 의한 연주이며,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이 이 위대한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도와줄 것이다.

[보조자료]

○ 비제 최고의 오페라 걸작인 <카르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자주 무대에 오르는 인기작이다. 탈법적인 내용과 살인 장면의 등장 등의 이유로 인해 1875년 3월 3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의 초연당시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상연 횟수가 거듭될수록 작품에 대한 대중들의 호감도 점점 늘어났다. 이후 비제는 대사 대신 레치타티보를 적용한 버전을 내놓았는데, 이 버전은 1875년 7월 23일 빈 궁정오페라에서 초연되었다.

○ <카르멘>은 스페인 남부의 세비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프랑스 작가 메리메의 원작을 역시 프랑스 작곡가 비제가 작곡한 프랑스 스타일의 오페라 코미크다. 이들이 카르멘의 이야기에 주목한 것은 그 캐릭터가 남자를 파멸시키는 전형적인 '팜파탈'이기 때문이다. 팜파탈을 문학과 음악의 중요한 소재로 삼은 것은 프랑스 문화의 깊은 전통이다. 원작에 없는 미카엘라라는 순수한 여인을 등장시킨 것도 카르멘의 캐릭터와 극명한 대조를 주기 위함이다.

○ 스페인의 오페라 연출가 칼릭스토 비에이토(1963~)는 '오페라계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실험적인 연출이 일반화된 유럽에서도 마르틴 쿨제이와 함께 가장 급진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아름다운 감동이 아니라 몸서리치는 충격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그의 연출기조다. 그가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을 위해 연출했던 모차르트의 '돈조반니'와 베르크의 '보체크'의 공연실황이 이미 DVD로 선보인 바 있다.



C Major DVD 707908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조르다노: 안드레아 세니에

헥토르 산도발(세니에)/ 스캇 헨드릭스(제라르)/ 노르마 판티니(마달레나) 외/ 울프 슈르머/ 빈 심포니커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는 브레겐츠의 화려한 호반무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국경에 위치한 보덴호수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성대한 오페라의 축전이 펼쳐진다. 호수의 수면 위에 설치되는 스펙터클한 무대미술로 유명한 브레겐츠 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광활한 호수 면에서 펼쳐지는 공연인 만큼 불가피하게 가수들이 마이크를 이용해야만 하는 약점이 있지만,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한 화려한 무대미술과 독특한 연출로 유럽을 대표하는 오페라 축제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브레겐츠의 무대에 오른 오페라는 조르다노의 대표작인 <안드레아 세니에>다. 프랑스 대혁명기의 혼란 속에서 희생된 젊은 시인의 열정을 다룬 이 오페라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조국의 적', '5월의 아름다운 어느날'과 같은 빼어난 선율의 아리아들과 죽음을 초월한 감동적인 사랑을 다룬 극적인 스토리로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작이다. 다비드의 유명한 그림인 '마라의 죽음'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거대한 무대에서 멕시코의 새로운 드라마틱 테너 기대주 헥토르 산도발이 영웅적인 세니에를 열연하였다.

[보조자료]

○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스위스 국경 인근의 보덴호수 위의 거대한 무대에 고정 세트를 설치하여 한여름 내내 공연한다. 2년 동안 한 작품만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2005/6년에는 <일트로바토레>(Opus Arte에서 DVD출시), 2007/8년에는 <토스카>(Phoenix Editon에서 DVD출시), 2009/2010년에는 <아이다>(C Major에서 DVD와 Blu-Ray출시)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객석은 호반에 설치되었으므로 관객들은 호수 쪽을 바라보면서 정면에 설치된 무대의 오페라를 즐긴다.

○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는 프랑스 대혁명기의 실존 인물인 시인 앙드레 세니에(1762-94)의 죽음을 소재로 삼았다. 그는 애초에 대혁명에 동조했으나 혁명 후에는 급진 자코뱅 세력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젊은 나이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후 20년이 지나서 유작들을 묶은 시집이 출판되면서, 시인으로서의 그의 재능이 새롭게 평가되었다.

○ 키스 워너의 프로덕션은 브레겐츠 페스티벌 특유의 호반무대를 심층 활용한 장엄한 무대미술로 우선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한다. 무대미술을 맡은 데이비드 필딩은 혁명기를 대표하는 미술작품 중 하나인 자크 루이 다비드의 걸작 '마라의 죽음'을 거대한 조각품의 형태로 호수 수면위에 재현하였다. 와이어를 이용한 공중곡예나, 수면을 활용한 다이내믹한 연출, 그리고 1막과 2막 사이에 강렬한 전자기타 사운드를 배경으로 임의적으로 삽입된 혁명의 난장판 등이 이 프로덕션만의 독특한 볼거리를 만들어낸다.



C Major DVD 706808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201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4번, 볼레즈: 노타시옹 I-IV, VI, 브루크너: 테 데움
도로테아 뢰슈만(sop), 엘리나 가란차(ms),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그트(te), 르네 파페(bass)/ 다니엘 바렌보임(pf, cond)/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시대 최고의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브루크너의 가장 위대한 종교합창곡

201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그 오프닝 콘서트에서부터 화려함과 풍성함을 맘껏 자랑하였다. 피아노와 지휘 양 분야 모두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와 독주 일인이역으로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4번을 아름답게 연주하였으며, 피에르 볼레즈의 대표 관현악 중 하나인 '노타시옹' 연주를 눈과 귀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후기낭만시대의 종교합창곡을 대표하는 브루크너의 걸작인 '테 데움'이 장식한다. 작곡가의 후기 교향곡들에 뒤지지 않는 장대한 스케일과 당당한 박력으로 신을 소리 높여 찬미하는 이 위대한 작품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성악가들인 뢰슈만, 가란차, 플로리안 포그트, 파페의 열창과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과 빈 필하모닉의 뛰어난 앙상블, 그리고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브루크너리언의 한 사람인 바렌보임의 명쾌한 지휘로 만난다.

리스트: 파우스트교향곡, 바그너: 파우스트 서곡

엔드릭 보트리히(테너)/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히켈레



C Major DVD 707708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히켈레의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콘서트

게르만 마에스트로 계보의 적통으로 각광받고 있는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2012/13 시즌부터 드레스덴 슈타츠히켈레의 수석지휘자에 정식으로 취임할 예정이지만, 이미 이 악단의 여러 주요한 콘서트들을 직접 지휘하면서 돈독한 파트너십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본 영상물은 2011년 2월 21/22일 드레스덴 젤퍼오퍼에서 있었던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콘서트를 담은 것으로, 작곡가가 남긴 가장 큰 스케일의 관현악작품인 파우스트 교향곡이 메인 프로그램을 장식하였다. 괴테의 걸작 '파우스트'의 세 주인공들인 파우스트, 그레첸, 메피스토펠레스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3개의 악장과 테너 솔로와 남성합창이 노래하는 신비의 합창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작곡가 특유의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의 매력과 더불어 문학작품에서 얻은 창조적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표제음악의 가장 우수한 예로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파우스트와 관련된 또 하나의 작품이 함께 수록되었다. 리스트의 사위이자 절친한 동료였던 바그너의 작품인 '파우스트 서곡'이 바로 그것이다.

UNIKO

김모 포요넨(아코디언)/ 사물리 코스미넨(샘플링)/ 크로노스 퀴텟

화려한 영상으로 만나는 크로노스 퀴텟의 최신 프로젝트 UNIKO

UNIKO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현대음악의 전도사로서 묵묵히 활약해왔던 크로노스 퀴텟이 핀란드의 유니크한 아티스트들이 아코디언 연주자 김모 포요넨, 샘플러 사물리 코스미넨과 더불어 완성한 독특한 성격의 일렉트로-클래식컬 프로젝트이다. 포크뮤직과 아방가르드,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UNIKO의 음악은 2004년 헬싱키 페스티벌에서 처음 공개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왔는데, 당시의 콘서트실황이 바로 본 영상물에 고스란히 수록되었다. 포요넨의 아코디언과 크로노스 퀴텟이 함께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연주는 코스미넨의 감각적인 엘렉트로닉 사운드 이펙트에 의해 한층 더 강렬한 인상으로 거듭나며, 다섯 편의 프로젝션 스크린을 적절히 활용한 입체적인 조명은 음악의 이미지에 걸맞은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콘서트 실황과 더불어 16분 분량의 부가영상인 'Making of UNIKO'가 함께 제공된다.



C Major DVD 707108



Accentus DVD

www.accentus.com



Accentus DVD ACC20238

Hot Issue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크리스티아네 월체(sop)/ 사라 코널리(ms)/ 리카르도 샤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러 스페셜리스트가 만들어낸 장엄한 부활 교향곡

리카르도 샤이는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재임 당시에 이미 걸출한 말러 교향곡 전집을 완성하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러 스페셜리스트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라이프치히로 옮겨온 뒤에도 말러에 대한 그의 열정은 변함이 없어서, 2011년 5월 작곡가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하면서 게반트하우스에서 인터내셔널 말러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본 영상은 페스티벌 기간 중 있었던 교향곡 2번 '부활'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묵직한 흐름으로 이 교향곡의 장엄한 위용을 유감없이 구축해나가는 샤이의 강렬한 지휘와 탄탄한 앙상블로 거장의 지휘를 뒷받침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력이 빛을 발한다. 특히 마지막 악장의 피날레를 들린 방송합창단의 열창은 이 위대한 교향곡의 송엄장식하는 MDR 합창단과 배한 감동을 유감없이 구현해내었다.

아트워크 : 현재 유럽 화단에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라이프치히 출신의 화가 네오 라우호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담은 아트워크도 이 영상물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준다.

말러: 교향곡 8번 '천인의 교향곡'

에리카 수네고르드, 리카르다 메르베트, 크리스티아네 월체(sop)/ 리오바 브라운, 게르히트 롬베르거(alt)/ 스티븐 굴드(te)/ 디트리히 한셀(br)/ 게오르크 체펜펠트(bass)/ 리카르도 샤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HD급 화질로 최초로 선보이는 말러의 교향곡 8번

말러의 교향곡 8번은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와 더불어 서양음악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마우루스가 쓴 9세기의 라틴어 찬가인 '성령이여 오소서'(Veni creator spiritus)를 토대로 한 1부와 괴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을 토대로 한 2부가 결합된 이 미증유의 대교향곡은 1910년 뮌헨에서의 초연당시 858명의 성악가와 171명의 연주자가 동원되면서 '천인의 교향곡'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게 되었다. 본 영상은 2011년 5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있었던 말러 페스티벌 중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이 교향곡의 장대한 스케일을 고해상도의 화면과 뛰어난 음향을 통해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거장 리카르도 샤이의 강렬한 카리스마는 게반트하우스 무대를 가득 메운 500여명의 뮤지션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나간다.

아트워크 : 현재 유럽 화단에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라이프치히 출신의 화가 네오 라우호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담은 아트워크도 이 영상물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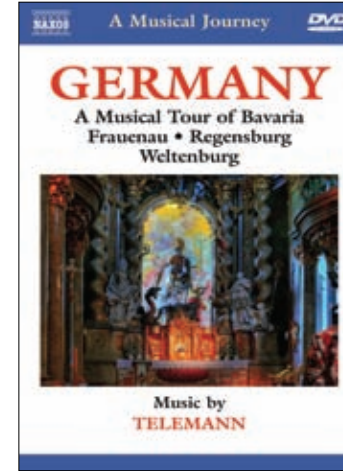
Accentus DVD ACC20222

Hot Issue



Naxos DVD

www.naxos.com



NAXOS 2.110537

A Musical Journey – 독일

바바리아 숲 속의 수제(手製) 글라스 제조과정과 텔레만의 음악

독일 남부는 가톨릭 지역이며 기후도 상대적으로 온화하여 북독일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바바리아의 숲에서 아직도 수제로 제작되는 유리제품의 공정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입으로 불어서 틀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세밀하게 다듬고 문양을 그려 넣는 일까지 모두 손으로 작업한다. 그런 정성스런 과정을 거쳐 고품격의 예술작품처럼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레겐스부르크의 투른과 탁시스 가문 궁전, 뵘텐부르크의 바로크식 수도원으로 향한다. 음악은 바흐 다음으로 바로크 독일음악에서 중요한 작곡가인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리코더와 위한 모음곡,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2대의 호른을 위한 협주곡이다. 이탈리아 스타일을 반영한 곡이어서 남부 독일을 소개하는 영상물에 더욱 잘 어울린다.



NAXOS 2.110538

A Musical Journey – 스위스

스위스 티치노의 벨라 박물관 조각상과 쇼팽의 전주곡

스위스의 이탈리아계 사용지역인 티치노에는 무세오 벨라란 건물이 있다. 벨라 박물관이란 뜻이다. 이곳은 19세기의 이탈리아계 스위스 조각가인 빈첸초 벨라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한 것으로, 빈첸초는 대부분의 작품을 회반죽으로 만들었으나 나중에 돌로 재작업 되었다. 또 빈첸초의 친형인 로렌초의 조각, 그리고 빈첸초의 아들인 스파르타코의 회화도 진열되어 있다. 아들의 이름은 빈첸초의 대표작인 로마의 반란영웅 '스파르타쿠스'에서 따온 것이다. 음악은 쇼팽이 사용되었다. 무세오 벨라의 외부 전경에는 초기작인 '화려한 전주곡'이, 조각상과 회화를 돌아보는 동안은 감수성이 특별히 풍부한 전주곡 중에서 13곡이 선곡되었다. 쇼팽이 연인 조르드 상드와 함께 마요르카에 머물던 시기에 대부분 작곡되었는데, 종교적이든 인간적이든 부드러움이 돋보이는 벨라 일가의 작품에 잘 어울린다.



KBS 가 뉴 미디어 매체 사용자를 위한 'KBS Classic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S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공연정보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 1,000곡을 언제 어디서든 감상하고, KBS 1FM 방송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1. QR 코드 스캔 후, 자동연결
2. http://classic.kbs.co.kr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
3. 애플 앱스토어, Tstore 에서 'KBS classic Library' 검색 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됩니다.

절찬리 판매중



101 571

108 008

헨델을 비롯한 여러 바로크 오페라들은 화려한 무대와 아름다운 선율에도 불구하고 장황한 내용 때문에 쉽게 몰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바로크 오페라 영상물들이 한글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헨델의 걸작 오페라의 하나로 꼽히는 <알치나>의 2010년 빈 슈타츠오페 실황을 담은 본 영상은 Arthaus 본사에서 직접 삽입한 한글자막을 통해 그 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바로크 오페라의 화려한 진면목을 펼쳐 보인다.

여마법사 알치나에 반한 기사 루지어로, 남장을 하고 나타난 루지어로의 약혼녀 브라다만테,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함께 엮인 흥미로운 애증의 변주곡이 감각적인 무대미술과 화려한 의상과 함께 펼쳐진다. 연출가 애드리안 노블은 18세기 데본셔 공작부인의 거실에서의 사설 공연을 재현하는 형태로 이를 연출함으로써 시대적 정격성과 바로크 오페라 고유의 정취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바로크 오페라의 대가 민코프스키의 지휘와 하르테로스과 카사로바를 위시한 일급 성악가들의 열창이 공연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 * *

헨델의 대표 오페라 걸작을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다 헨델 '알치나' [수입완제품 - 한글자막]

아나 하르테로스(알치나) | 베셀리나 카사로바(루지어로)
크리스티나 함마르스트룀(브라다만테) | 베로니카 칸체미(모르가나) 외
마크 민코프스키 | 르 뭉지시앵 뒤 루브르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통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ö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ö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ö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ö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ö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m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 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 Berceuse Op.16 (포레 : 자정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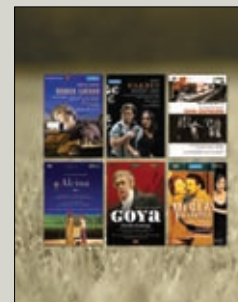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통 컬러링(60초) 이용방법

##7270142 + 통화_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표지사진

한글자막 포함 수입 완제품 영상물

<아울로스뉴스> 2011년 9월호

통권 제 50호 발행 : 2011년 10월 5일

발행인 : 임용욱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